

문학석사학위논문

김승옥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무진기행」과 「야행」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남 송 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순 정

정순정의 문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2003년 12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부 심 문학박사 강 인 수



위 원 문학박사 남 송 우



목 차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사.....	3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0

II. 본 론

1. 기초적 고찰

(1) 김승옥 소설의 개괄.....	13
(2) C.G.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적 바탕.....	15

2. 「무진기행」과 「야행」의 분석 심리학적 연구

(1) 내부 세계로의 여행 - 「무진기행」

1) 남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	20
2)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아니마	32
3) 부끄러운 영혼이 지닌 순수의 의미 -개성화.....	45

(2) 외부 세계에 대한 저항 - 「야행」

1) 여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	50
2) 내적 동반자로서의 아니무스.....	61
3)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의 의미 -개성화.....	71

(3) 「무진기행」과 「야행」에 나타난 전일체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인 조화

1)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 특성.....	75
2)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조화.....	78

III. 결 론.....81

참고문헌.....85

영문초록.....89

국문 요약

본고는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작중 인물의 심리를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하여 작중 인물의 갈등양상이 자기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재약회사의 전무로 내정된 사회적 페르조나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한 결과 실상 현실의 어떤 기득권도 부정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회의도 함께 동반하는 정신의 분열상을 드러낸다.

무진에로의 기행은 회중이 경시해 온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계기가 된다. 친구인 조와 후배 박과의 대면은 자신의 그림자 보기에 해당하며, 현실 논리에 얽매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는 무진에서 만난 미친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둡던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되면서 묻혀진 내면의 갈등상을 직시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아니마상인 자살한 작부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현실과 존재 사이에서 방황한 그 여자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무진에서의 정체된 삶에 괴로워하는 음악 선생 하인숙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잠재된 사랑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외부 인격인 페르조나와 내부 인격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성찰의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고백으로서, '선과 악'의 대극처럼 그가 자아의 '당당함'을 추구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무진으로의 여행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내면의 성찰과정으로서 윤희중의 개성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야행」의 여주인공 현주는 보편적 여성의 페르조나의 지향점으로 볼 수 있는 안락하고 부유한 가정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숨겨야만 하는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현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현주는 자신의 더러운 그림자를 보게 되며, 허위에 익숙해진 남편에 대한 증오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가치로운 삶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자각한다.

그녀의 아니무스로 나타난 낯선 사내는 매몰되고 고질화된 삶의 울타리를 용기 있게 벗어나라고 암시한다. 현주는 윤리를 역행하는 비사회적인 방법인 야행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감행한다. 공포와 혼란 없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주의 ‘야행’은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 찾기’ 즉 개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은 전일체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의 양상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윤희중의 페르조나가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하여 현주의 페르조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우선하는 데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와 자아와의 과도한 동일시로 인해 억압된 심혼상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성향을 고찰하였다.

전체 인격인 ‘자기’에 도달하는 길은 현주가 내부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희중이 내부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체험하고 무의식이 보내는 암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때 가능해진 것이다.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김승옥¹⁾은 많지 않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학사에 남긴 자취는 ‘그를 넘어서지 않고 새로운 문학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²⁾있다고 말해질 만큼 뚜렷하다. 따라서 김승옥의 문학 세계에 대한 평론과 연구들은 상당한 양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김승옥 소설 연구를 편의상 내·외적 연구로 나누어 보면, 외재적 연구는 1960년대 사회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 논의를 집중해서 60년대적 의의를 찾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4·19를 통한 개인의 자유 획득이라는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적 연구는 주로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연구에 집중되었는데 초기 소설에서부터 김승옥이 보여 준 ‘자기 세계’에의 탐구가 그것이다.

문학의 특질은 인간 탐구가 궁극적인 과제이며, 인간의 종합적 관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구조에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도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이 없는 소설이란 배우가 없는 무대처럼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³⁾

1) 김승옥은 1962년, 단편 「생명연습」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1980년에 이르기까지 15편의 단편 소설과 3편의 중편 소설, 4편의 장편 소설, 그리고 2편의 미완성 작품과 36편의 콩트를 발표했다. 또한 1965년에 「서울 1964년 겨울」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77년에는 「서울의 달빛 0장」으로 제 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등단과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하여 세대 논쟁과 소시민 논쟁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유종호, 「슬픈 도회의 어법-다시 읽는 김승옥」, 『문학의 즐거움-전집5』, 민음사, 1995.

따라서 많은 논자들이 김승옥 소설의 인물 연구에 집중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문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이 없이 작품의 내용 분석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건강부회(牽強附會)해 온 감이 적지 않다.

본고는 김승옥의 인물을 연구하되 분석 심리학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논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의 심층적인 심리를 추적하여 보고자 한다.

작중 인물의 연구는 작중 인물의 심리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가 소설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찰하여 소설의 재미를 엮어 나가듯이 심리학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크나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소설의 주체가 되는 작중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상 비평적으로 인물을 규정하는 것보다도 심리학의 원용으로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옳을 것 같다.

인간의 심리(무의식)를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탐구를 시도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1856~1939)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임상 사례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억압된 성적 욕구를 무의식의 주된 특성으로 여겼으나 뒷날에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욕구와 파괴적 욕구의 양면이 무의식의 충동을 이룬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은 충동의 창고이며 의식에서 끌어낸 쓰레기장이거나 병적인 유아기 욕구로 가득 찬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융은 무의식이 자율적 창조성을 가진 창조적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점에서 프로이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융은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고 말하는 대승불교의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진여(眞如)의 관념

3) 임 화, 『문학의 논리』, 학운사, 1936, p.411.

4)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33.

은 분석 심리학의 자기원형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김승옥의 소설에 나타난 작중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그러한 갈등이 자기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사

김승옥은 유종호로부터 ‘감수성의 혁명’이란 평가를 받은 이후로 적지 않은 평문 속에서 60년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⁵⁾

천이두는 “김승옥의 문학이 반영하는 획기적인 점은 첫째, 50년대 문학이 예외 없이 간직하고 있는 바 강력한 이슈에의 집착 내지 교훈에의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점, 둘째, 그의 문학에는 거의 대부분의 50년대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엄숙주의에서 연유한 고도로 긴장된 문장의 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 셋째, 인간의 숙명적 조건으로서의 고독을 추상적 서술이나 직선적 호소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생생한 모습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⁶⁾라고 지적하면서 ‘60년대 문학의 기수’로서 김승옥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관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작품의 형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현은 김승옥의 문체에 대해 중문과 복문의 교묘한 배합,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의 교합 등으로 서구적인 냄새를 풍기면서도 번역투 같지 아니한 교묘한 문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이태동은 김승옥 소설의 성취를

5)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유종호전집 1』, 민음사, 1965, p.425.

6) 천이두, 『문학과 시대』, 문학과 지성사, 1982, p.62.

황폐한 현실에 대한 ‘처절한 리얼리즘’과 그것을 표현하는 ‘서정적인 언어의 상징주의’가 융합된 결과라고 하였다.⁸⁾ 한편 정과리는 김승옥의 소설작법에 대해 역사적 현상을 현실의 중심부에서 포착하여 그 상황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의 본질적 요소들을 걸러내어 작가의 의식속에서 재조립함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의 리얼리즘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⁹⁾

김민수는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 경험 및 근대성 인식의 변모 양상을 통해 김승옥의 창작 방법으로서 ‘주관성의 미학’이 지니는 미학적 특성을 규명하였고,¹⁰⁾ 이호규는 김승옥의 60년대 작품을 ‘주체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김승옥 소설의 새로운 주체의 모습은 일상적 습속 내에서 자기의 문제와 습속의 문제성을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주체의 모습은 이후 실질적인 변혁의지를 지닌 일상적 주체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 작용했음을 그의 성과로 밝히고 있다.¹¹⁾ 이어령은 현대소설에서 소설 공간이 단순한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공간적 미학의 구조를 통해 관념, 의식, 심리를 나타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이미지의 질서로 엮어진 총화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여 소설 기법으로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작품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병익은 “50년대 작가들이 개인의 파멸을 전쟁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비극으로 밀어내는데 대해 그는 그 비극을 자신의 병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체적 자아의 탐구를 시도한 것

7)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p.246.

8)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 김승옥론」, 『부조리와 인간의식』, 문예출판사, 1981.

9)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오늘의 작가총서-김승옥』, 민음사, 1980.

10) 김민수, 「1960년대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16.

11) 이호규, 「1960년대 주체 생산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1.

12) 이어령, 「죽은 욕망을 일으키는 逆유평토피아」, 『多産性:김승옥 작품선』, 한겨레, 1987, p.365.

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창작은 내적 자아의 형성 또는 개인주의문학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며 우리의 정신사에서 처음으로 의식의 주체화에 전망을 비춰준 것이다.”¹³⁾라고 하였다. 이승준은 김승옥 소설의 60년대적 의미를 전쟁 체험의 내면화와 개인의 발견, 그리고 산업화와 인간소외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¹⁴⁾ 김치수는 김승옥의 작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들이 우리 자신 속에 얼마나 뿌리깊게 자라잡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이념에 훈련된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지배당하고 싶어 하는 모순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60년대 소설 가운데 가장 전위적인 성격을 띤 ‘반질서주의(反秩序主義)’를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¹⁵⁾ 정현기도 그의 작품에는 도덕성의 원천으로서의 삶의 지표를 상실한 채 산업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물질세계에 빠져드는 60년대의 정신적 폐허의 상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¹⁶⁾

김주연은 60년대가 갖는 중요성은 문학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비로소 싹튼 시기로 김승옥 문학의 개성은 ‘개인의 발견’과 ‘사소한 것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는 의미의 상대주의 혹은 트리비얼리즘’¹⁷⁾이라 했다.

백낙청은 김승옥의 소설을 소시민 의식이 팽배해 있는 60년대에 소시민 의식의 한계를 한계로서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공한 문학¹⁸⁾이라고 하고 있으며, 나순일의 논문은 김승옥의 전기적 사실과 사회적 상황에 관련시켜 작품을 고찰하고 그가 60년대의 소시민의식의 한계를 제시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생긴 심각한 불균형 상태와 도시화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13) 김병익, 「60년대식 풍속변화」, 『신한국문제작가선집1, 김승옥 선집』, 어문각, 1983, p.405.

14) 이승준, 「김승옥론」,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15) 김치수, 「질서에서의 해방」,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79, p.202.

16) 정현기, 「1960년대적 삶」, 『다산성』, 한겨레, 1987.

17) 김주연, 『상황과 인간』, 박우사, 1969, pp.214-219.

18)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 p.501.

로 소설에 투영되면서 어둡고 음습한 시대의 모습을 성생활 문화를 통해 절묘하게 보여주었다고 했다.¹⁹⁾

지금까지 김승옥의 작품 세계 전반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작품 「무진기행」과 「야행」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진기행」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형구²⁰⁾는 6.25 이후의 사회사에서 전형화된 소위 '출세한 촌놈'들의 사회심리학을 고전적으로 투영한 소설로 보고 60년대 신홍하는 상승 집단의 의식의 최대치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장현²¹⁾도 산업화 초기 물신화된 사회와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윤희중이 보이는 삶의 태도는 물신주의와의 타협이라고 했다. 나순일²²⁾은 윤희중의 우유부단하고 엉거주춤한 실존적 행위는 60년대적 지식인의 한 전형일 뿐만 아니라, 현대 소시민적 속물주의의 분명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며, 윤희중이라고 하는 60년대의 실존성을 지닌 인물을 통해 60년대의 삶의 질과 그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김학현²³⁾은 귀환형 소설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윤희중의 부끄러움은 '전망'에 대한 긍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순희²⁴⁾는 자기정체성 탐색 과정의 갈등상황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지적하면서 희중의 분신인 '하인숙'과 '조'를 통해 서울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게 되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아로 마지막을 그림으로써 현실논리를 선택한 자아의 이면에는 '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서은경²⁵⁾은 현재의 삶에

19) 나순일, 「김승옥 소설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20) 한형구, 「김승옥론-김승옥 문학의 사회사적 연구」,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89, p.230.

21) 장 현, 「김승옥 소설의 변모양상 연구」, 카톨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22) 나순일, 「김승옥소설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23) 김학현, 「김승옥 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24) 김순희, 「김승옥 소설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25) 서은경, 「김승옥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대립되는, 이상적인 삶을 향한 상승되고 고조된 욕망이자 이러한 동경이 무위로 끝나 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적 통찰로 루카치가 규정한 ‘환멸적 낭만주의’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동재²⁶⁾는 과거 속으로 사라진 무진에서 현재의 현실적 자아와 과거의 본질적 자아가 맞부딪칠 때, 자아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현실 긍정, 내지 현실 도피의 과정이 이 작품의 소설적 의미라고 하면서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현실적 자아의 승리로 일단락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야행」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노현주²⁷⁾는 「야행」에서 성적 일탈은 숨막히는 일상에 대한 대항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수용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면서 숨막히는 일상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김순희²⁸⁾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무가치하다고 보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욕망에 대한 긍정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황을숙²⁹⁾은 성의 일상성을 통해 일상의 복귀를 드러내는 것으로 성이 일상의 변환을 가져오는 경험세계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자아의 모색과정이라고 보았다.

서은경³⁰⁾은 현주가 넘고자하는 욕구는 위선이 없는 진정한 나를 추구하고자하는 욕망의 순수함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탈이 외부 힘의 소산인 낯선 남자에 의해 꿈꾸어지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은희³¹⁾는 현주의 성적 타락의 근본 원인은 우연한 봉변이었지만, 정

26) 이동재, 「김승옥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0.

27) 노현주, 「김승옥소설연구-의미구조와 사회변동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28) 김순희, 「김승옥소설연구-자아의 인식변모과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29) 황을숙, 「김승옥소설의 일상성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30) 서은경, 앞의 논문.

31) 오은희, 「김승옥소설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신적이고 미학적인 성의 문제를 단지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왜곡된 성의식의 표출이라고 하였다. 나순일³²⁾은 부부간의 윤리가 완전히 망각된 부도덕하고 타락한 영혼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했다. 장현³³⁾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인 현주의 개인적 욕망이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인 욕망으로 귀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지선영³⁴⁾은 「야행」은 의도적인 일탈을 시도함으로써 잠재된 갈등의 발현에 대응하려는 소시민의 처세술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야행」의 연구 내용 또한 반영론적 관점에서 근대화로 인한 욕망의 개인적 표출, 소시민의 처세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주인공 현주의 성의 추구를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여 일탈이라고 규정하여 성적인 타락 또는 영혼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현주의 일상에 대한 저항, 욕망의 긍정이라고 자아의 탐색 과정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그 한계점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일탈, 주체적이지 못한 일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평론들과 연구 논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김승옥 소설을 다루었고, 그의 문학을 객관화하고 역사화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승옥의 작품을 개인주의 문학내에서만 평가하거나 또는 사회 현실 반영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등의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는 아직 극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분석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승옥에 대한 연구가 대략 위와 같은 상황임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상비평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김승옥에 대한 평론이 상당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은 방법론에 의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승옥의 문학이 새로움의 대명사가 되었

32) 나순일, 앞의 논문.

33) 장 현, 앞의 논문.

34) 지선영, 「김승옥소설론」,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6.

다는 것과, 감각적인 문체와 도시적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명제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이러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작품의 표면적인 내용과 당시의 사회를 등치시키는 내용 사회학, 직접적 반영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60년대 김승옥의 텍스트는 그것을 70년대나 80년대에 옮겨 놓아도 무방하다. 텍스트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 심리의 갈등상, 소외, 자기발견의 자의식 등은 현대에서도 유효한 요소이다. 따라서 김승옥의 소설은 현대적 시각에서 읽어도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요소를 60년대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요인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김승옥의 텍스트가 지금까지도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이유를 도시성과 일상성에서 찾으려는 것은 오히려 김승옥의 텍스트가 지금까지도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이유를 해명할 수도 없을뿐더러, 문학이 가지는 보편성을 한 시대에만 묶어두려는 시도가 되고 만다.

셋째, 인물의 세계인식과 행동방식을 작가의 그것과 동일시하여 작가 의식을 추출해내는 방식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만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인물이 드러내 보이는 대화나 행동방식에 새로운 의도와 음성을 부여하여 자신의 의도와 굴절시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물 분석이 바로 작가 의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것은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인상비평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60년대에 한정하는 사회 반영론적인 관점을 지양하며, 텍스트 속의 인물과 작가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오류 또한 지양한다.

김승옥의 소설이 '자의식'을 다룬 소설임에 주목하여 그의 소설들의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60년대에 발표된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야행」을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융(Carl Gustav Jung, 1875-1961)³⁵⁾의 분석 심리학을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김승옥은 초기 소설에서부터 주체의 자기 정립의 방법론으로써 '자기 세계'의 구축을 문제삼으면서 개인의 내면세계 탐구에 주력³⁶⁾하고 이를

35) C.G. 융은 1875년 7월 스위스 케스빌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젤 대학교의 의과 대학에 입학하였고, 1900년에 정신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취리히에 있는 부르크홀츨리 정신병원의 조교자리를 얻었다. 1902년에 첫 저서를 발간했고, 1905년에 취리히 대학교 정신과의 강사로 일했다. 프로이트 초기 저작의 가치를 평가한 융은 정신병의 연수에 정신분석의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정신과 의사 중 하나가 되었다. 1909년 융은 개인 진료소를 차리기 위해 정신 병원을 그만두고, 이 해에 프로이트와 함께 미국에 건너가 클라크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져 1913년에 결별했다. 1913년에는 융의 『무의식의 심리학』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그의 독자적인 관점을 명백하게 기술한 최초의 저서로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정립되게 되었다. 1913~17년 사이에 융은 정신적인 대격변의 시기를 거쳤고, 이 기간 동안에 자기분석을 수행했다. 이 격동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그는 『심리적 유형』(1921)이라는 대표적인 저서를 발표했는데 이후 그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다. 193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융은 평생 취리히 호반에 있는 퀴스나흐트의 집에서 살았으며, 1961년 6월 6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36) 최상윤은 한국적 심리 소설을 '자의식 소설'이라 칭하고 그 특징으로서 첫째, '자기를 의식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둘째, '내적 독백이 나타나며 셋째, 사적 내밀성의 문제가 취급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60년대의 자의식 소설의 대표적 작가로서 김승옥, 이청준, 전상국, 윤홍길, 이동하, 오정희, 김원일 등을 꼽고 있다. 자의식 소설이란 자신의 눈을 주관적 내면적인 상황으로 방향을 돌려 끝없는 자기 탐구와 자기 천착을 시도하는 일련의 소설들을 말한다.

통해서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보여 왔다. 그러므로 김승옥의 소설의 인물들은 존재와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해석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융은, 신체적인 것을 강조한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은 다시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의식계에는 ‘나(자아)’를 볼 수 있고, 무의식계에는 ‘그림자’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자기’라 부르는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이 극단으로 기울면 인간의 정신은 분열의 상태가 된다고 하면서, 무의식의 의식화만이 인간의 자기 실현³⁷⁾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깊이 탐구해 온 융의 분석 심리학은, 어떤 작가보다도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보여 온 김승옥의 소설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인간의 전체 정신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필자가 「무진기행」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든 이유는 특정한 주변 인물이 없으며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 양상이 두드러져서 심리 분석이 용이한 까닭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김승옥 소설 중 대표적인 성숙한 남성 화자로서 남성 심리의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야행」을 선정한 이유는 김승옥의 작품 중 유일하게 여

최상윤, 「한국의 자의식 소설 연구」,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9.

37) 융은 자기실현을 ‘그 인간을 그가 그렇게 있는 그 특정한 개별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기실현의 일차적 과제는 바로 자기와 페르조나를 분리하여 구분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밖의 대상으로 투사된 자기의 무의식의 내용들을 인식하여 자기의 분신들을 자신에게로 돌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106.

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으로서, 역시 주변 인물의 개입이 없이 주인공 여성의 심리적 갈등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고는 「무진기행」과 「야행」의 주인공 희종과 현주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갈등상을 분석심리학의 ‘개성화 과정’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본론 1장에서는 김승옥의 작품 세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인 분석심리학에 대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진다. ‘자아’와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 무의식의 열등 인격인 ‘그림자’,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내적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전체성으로서의 ‘자기’와 자기실현인 ‘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텍스트인 「무진기행」과 「야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무진기행」을 내부 세계로의 여행으로 파악하여, 남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윤희종의 심리적 갈등상을 추적하여, 미친 여자,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아니마인 자살한 술집 작부, 하인숙을 중심으로 희종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본 뒤 희종의 서울로의 상경이 개성화의 과정임을 밝힌다.

(2)절에서는 「야행」을 외부 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하여 현주의 여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현주의 아니무스상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현주의 개성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무진기행」과 「야행」의 희종과 현주의 페르조나 양상을 비교하고 여성 심리와 남성 심리를 고찰함으로써 전일체로서의 인간 내부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내적인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기초적 고찰

(1) 김승옥 소설의 개괄

1960년대 소설의 특징은 새로운 감각의 신세대 작가군의 대표격인 김승옥의 작품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화사한 감수성의 세계와 싱싱한 위트, 문학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개인의 발견’으로 회전시키고 사소한 것의 사소하지 않음에 대한 실존적 인식 등을 통해 60년대의 정신적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다³⁸⁾는 평가를 받으며 현대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그의 단편소설들은 인간과 세계의 부조리함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옥의 소설은 일상적 개인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데 주목하여 그들이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생명연습」(1962)은 한 대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고향 여수에서 겪은 가족들에 대한 회고담이다. 김승옥의 소설에서는 자기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현실 상황과 투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자기세계 수호를 위한 비도덕적인 방법들은 ‘극기’라는 맥락 아래 이해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회적인 도덕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세계를 유지하는 보다 근원적인 윤리인 것이다.³⁹⁾ 김승옥의 가장 난해한 소설 중의 하나로 꼽히는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38) 한경아, 「김승옥 소설의 인물의식구조 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p.1.

39) 이광호, 「깊고 어두운 자기세계」,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p.51.

(1962)는 도시에서 자신의 존재 인식에 실패한 누이가 침묵만을 고집함으로써 존재가 갖는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인해본 열 다섯 개의 고정관념」(1963)은 신춘 문예에 낙방한 대학생이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내용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이 일상적인 고정관념을 되짚어 보는 행위는 무위에 가까운 만큼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성의 가치에 대한 은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교환가치에 의해서 평가되고 죽어서도 돈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⁴⁰⁾ 이러한 돈에 대한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서울, 1964년 겨울」(1965)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생과 서른 대여섯 살쯤 되는 가난한 외판원 사나이의 삭막한 도시적 인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차나 한 잔」(1964), 「들놀이」(1965)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거부감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지는 못한 채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산성(多産性)」(1966)은 자기 존재의 본질이 '사는 것이란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라는 의미의 상실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내용의 연작소설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희생되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 논리는 경제 개발을 통해 온갖 부와 풍요를 누리겠다는 물질적 욕망은 있어도, 인간성의 고양이나 참된 인간 삶을 위한 노력 등은 찾아 볼 길 없다. 1977년에 발표되어 제 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 「서울의 달빛 0장」은 물질에의 굴복과 성의 상품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남녀 관계를 지배하는 교환 가치의 논리와 이를 통한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77년에 일요신문에 연재된 「강변부인」은 김승옥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작가의 주장 같은 건 아예 없이 순간 순간의 감정, 욕구에만 충실한 한 여자를 쫓아다녀 본”⁴¹⁾소설이다. 김승옥은 1980년도에

40)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연구」,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p.68.

41) 김승옥, 「60년대의 사회적 도덕적 특징」, 『한국현대장편문학 28』, 장미문

70년대의 정치적인 질곡을 담아보려는 의도로 「먼지의 방」을 연재하기로 한다. 그러나 힘겹게 추스려 보고자하는 그의 문학 세계는 광주사태라는 눈 앞에 존재하는 역사의 횡포 앞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김승옥은 그 이후 기독교에 귀의하는 등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보여주면서 작품 활동은 멈추고 있다.

개별화의 경향이 소설계를 풍미했던 문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김승옥 만큼 인간의 내면을 섬세한 필치로 파헤쳐서, 소설은 일관된 플롯 속에 일관된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는 재래(在來)의 인식을 과감하게 깨뜨린 작가는 종전의 소설사에서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2) C.G.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적 바탕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심리학도 있고, 의식만을 다루거나 길에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심리학도 있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경험심리학이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심층심리학이다.⁴²⁾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석심리학이 심혼(心魂, Seele)을 다룬다는 점이다. 인간의 정신을 알려진 뇌기능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심리학에서 혼을 찾기는 어렵다. 무의식은 주로 의식에서 억압된 충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도 혼의 향방은 묘연하다. 혼의 존재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마음대로 꾸며낸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능가하는 내 안의 어떤 것, 그 자체로서 나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완전한 타자(他者)이며, 하나의 객체정신(Objektpsyché)이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렬함과 자유로움,

회사, 1980, p.432.

42)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23.

그리고 누미노제(Numinose, 신성한 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찰이 바로 융의 분석심리학의 특징이다.

분석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자아

누구나 ‘나’(자아)를 가지고 있고 ‘나’를 통하여 바깥 세상과 어울리며 ‘나’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살핀다. 의식의 중심인 ‘자아’(Ich, Ego)⁴³⁾가 그것이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서 의식된 마음을 통솔하고 또한 무의식의 마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의식의 내용은 모두 나와 연관되고 나는 나의 의식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며 무의식의 작용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창구인 동시에 내면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태도는 우리 인격의 성숙, 즉 자기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페르조나

집단사회의 행동규범 또는 역할을 분석심리학에서 ‘페르조나’(Persona: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쓰던 가면⁴⁴⁾)라 부른다. 이것은 집단정신에서 빌려온 판단과 행동의 틀이다. 집단이 개체에 요구하는 도리, 본분, 역할, 사회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 그 집단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할 여러 유형이다. ‘나’는 페르조나를 배우고 여러

43)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를 구분한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전체정신의 중심이다.

44)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 자신을 개성적이라고 믿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집합적인 마음이 분장 출연한 역할에 불과하다.

C.G. 융, 설영환 역, 『융, 무의식 분석』, 선영사, 1986, p.222.

종류의 페르조나를 번갈아 쓰면서 사회 속을 살아간다. 그러나 페르조나는 인간의 보편적·원초적 행동 유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아를 페르조나와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자아는 무의식의 내면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3) 그림자

그림자⁴⁵⁾는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의식의 내용이다. 그림자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다. 이것은 자아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측면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적인,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닌다. 자아의식이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⁴⁶⁾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으로서의 그림자는 의식화해서 의식에 동화하면 의식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림자의 부정적인 작용은 건설적인 기능으로 바뀐다. 그림자는 강력한 저항 아래 억압되어 있고 억압된 것이 의식됨으로써 정신적 대극의 긴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긴장 없이는 정신의 발전 또한 불가능하다.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으로서의 그림자는 의식에 동화하면 의식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림자의 부정적인 작용은 건설적인 기능으로 바뀐다.

4) 아니마, 아니무스

일반적으로 그림자가 의식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니마, 아니무스⁴⁷⁾

45) 심리학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자란 바로 '나'(自我)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이다. 자아의식이 강하게 조명되면 될 수록 그림자의 어둠은 짙어지게 마련이다.

46)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41.

를 인식하게 된다. 아니마·아니무스는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의 내적인격이다.⁴⁸⁾ 남성의 무의식의 내적인격은 여성적 속성을, 여성의 무의식의 내적인격은 남성적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여성적, 남성적 속성이란 집단 사회의 전통적 여성관, 남성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인류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상상하고 체험한 모든 것에서 우러나온 원형의 조건을 토대로 하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인류공통의 보편성을 지닌다.

원초적 여성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남성들이 남성의 페르조나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 감성과 예감 능력으로 표현된다. 또한 원초적 남성성은 여성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생각하는 힘과 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인격 아니마·아니무스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미숙한 상태로 남아서 인격에 장애를 일으킨다.

아니마·아니무스는 원형이지만 무의식의 원형 중에 특수한 원형이어서 자아의식을 무의식의 심층,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아니마, 아니무스의 인식을 통한 인격의 통합과 분화는 개성화(자기실현)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5) 자기와 개성화 과정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 전체를 자기(Selbst, self)라 한다. 자기는 전체인격의 통일성과 전일성을 나타낸다. 즉 ‘하나가 된 인격’이다. 자아 의식만으로는 결코 하나가 된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 정신의 일부일 뿐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

47) 아니마는 독일어의 제엘레(Seele, 심령)에서, 아니무스는(Geist, 심혼)에서 빌려온 라틴어 용어이다.

이부영, 위의 책, p.43.

48)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143.

될 때 비로소 전체인격이 실현된다. 전체 인격이란 그 사람이 무의식을 의식화해감으로써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개성화의 원초적 조건이다. 자기가 전체성인 동시에 원형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개성화의 원동력이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기 원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이라면, 개성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아의 결단과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무의식과 의식과의 합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원형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상정을 보내서 자아로 하여금 전체로서의 생을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때로는 의식에 충격을 가하여 창조적인 인격의 변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기실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대부분 그 개체의 자아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자아가 무의식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용은 완전한 개성화를 달성하는 것보다 자기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자기를 전혀 모르고 자기를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원형은 외적인 의식적 자아와는 전혀 다른 내적인 길잡이다. 자기는 인격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좌우하는 힘을 지니며, 인격을 성숙시켜 그 지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발달을 통해 자기 삶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분석 심리학은 종교도 아니고 도덕률은 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학문으로서 자연과학적 심리학이다.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탐구를 통하여 발견한 사실을 전달할 뿐이다. 그 사실의 하나가 아니마·아니무스가설이며, 개성화이다. 간단히 말해서 남성의 마음 속에 여성이 있고, 여성의 마음 속에 남성이 있다는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그가 지닌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그의 전체 정신인 '자기'에

도달하려는 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무진기행」과 「야행」의 분석 심리학적 연구

(1) 내부 세계로의 여행 - 「무진기행」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다른 어떤 작품보다 그의 소설가적인 재능과 개성을 훌륭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타성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 항상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준다. 이 작품의 화자인 윤희중은 자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지만, 첫 여인과의 사랑에 실패를 하고 젊고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장인의 도움으로 어느 제약회사의 전무가 될 예정이다. 그의 아내는 회중이 자의식 때문인지 안색이 좋지 않자 그를 보고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고향 무진으로 내려가 며칠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기차로 무진 가까운 간이역으로 가서 다시 덜컹거리는 버스를 갈아타고 고향인 무진으로 가서 이틀밤을 보낸다. 그러나 곧 아내로부터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상경 바람'이라는 전보를 받고 무진을 떠나는 버스를 탄다. 그가 고향인 무진에 다녀 온 여행은 이렇게 짧지만 무진에서의 경험과 사고는 그의 자의식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1) 남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

여행이나 길떠남은 현재상황으로부터의 탈출해야할 필요성이나 그렇게 하고자하는 탈페르조나의 욕구이다. 개성화 과정⁴⁹⁾에서 페르조나를 벗어

버리는 것은 중요하다. 정학재는 무진을 "현실이 강요하는 틀을 잠시 벗어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의식"이라고 하였다.⁵⁰⁾

윤희중은 '출세한 촌놈'이다. 전쟁 이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일정한 처세술을 기반으로 삼아 서울에서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인물이다. 그가 현실 원리에 지나치게 충실해 왔음은 그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애증 심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진이란 곳은 그에게 의미 있는 정감의 고향이기보다는 그의 긴장과 갈등을 풀어주는 관념적인 공간⁵¹⁾인 것이다.

무의식은 자아가 무의식을 경시하고 그것과의 대면을 피할 때, 자아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자극함으로써 무의식의 경향을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아에게 준다. 자아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차리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자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무의식의 창조적 작용은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율성과 보상작용⁵²⁾으로 표현된다.

「무진기행」은 윤희중의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에서의 회중은 제약회사 사장의 사위로 그의 사회적 페르조나는 굳건하다. 그런 삶이 보장될수록 내부 세계는 억압당하게 되며, 그의 자아는

49) 개성화의 과정은 마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성장 과정은 흔히 나무로 상징된다. 나무의 느리지만 힘찬 발육은 명확한 하나의 패턴을 이루기 때문이다.

C.G. 융,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도서출판 열린책들, 2002, p.161.

50) 정학재, 「김승옥소설연구-인물의 세계인식과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51) 무진이라는 공간은 지리적 환경이나 상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의식의 내면, 생의 양식까지 표현해 준다.

이어령, 「죽은 욕망을 일으켜 세우는 억류토피아」, 『다산성』, 한겨레출판사, 1987. p.367.

52) 무의식은 자아 의식이 외쪽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식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활발히 보내서 그것을 보상한다.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39.

심리적 갈등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에 대해 회의하고 갈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외면 밑에는 죽음 같은 권태로 괴로워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공허할 수도 있으며, 외적상황에의 집착은 정신의 해리 상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에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둠던 나의 청년(靑年)이었다. 그렇다고 무진에의 연상이 꼬리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나의 어둠던 세월이 일단 지나가 버린 지금은 나는 거의 항상 무진을 잊고 있었던 편이다.⁵³⁾

회중이 그의 내면 세계와 단절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삶의 경험들은 그의 개인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었다. 따라서 회중은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항상 자신을 상실하는 곳,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던 원점으로서의 무진은 그 모든 것을 무화(無化)시켜 버리는 곳이다. 이런 점은 이렇게 자신에게 중요한 무진이 실제 삶 속에서 한번도 떠올리지 않을 만큼 필요없다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⁵⁴⁾

53)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 전집 1권』, 문학동네, 1995, p.129.

무진은 ‘나’에게 있어 무엇인가 현실감이 없는 장소로 인식되어 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공상이 가능한 곳, 이러한 것이 가능한 곳은 시기적으로 소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진은 늘상 소년기와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러한 두려움을 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공간인 것이다.

나의 무진에 대한 연상의 대부분은 나를 돌봐 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신경질을 부리던 것과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不眠)을 쫓아 보려고 행하던 수음(手淫)과 곧잘 편도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꽂초와 우편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었다.⁵⁵⁾

무진에서의 회중은 언제나 심리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신경질과 공상과 불면, 수음과 독한 담배꽂초와 초조함으로 그의 갈등 양상은 표현된다. 삶에 대한 청년기의 순수한 고뇌와 그의 현재의 고뇌 사이에는 현실원칙에 충실한 그의 생활이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회중은 지식인이다. 그의 무기인 지식이란 비록 결과적으로는 출세의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습득한 자에게 불편한 양심,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의식을 선사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현실에 대한 그의 심리적 갈등은 생겨난다. 무진에의 연상이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삶에 지친 순간 무진을 연상한다는 사실은 무진이 그의 긴장과 갈등을 풀어주는 관념적인 공간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갖는 정신적인 긴장과 갈등의 상태를 해소해 주는 무의식적인 휴식의 공간으로서 무진을 설명하고 있는 최혜실은, 무진에서의 시간이 외계에 적응하기에 실패한 생명력이 무의식으로 후퇴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다시 외계로 향하는

54) 김승옥, 앞의 책, p.127.

55) 김승옥, 앞의 책, p.128.

심리의 구조로 되어 있는 재생 원형의 과정 중 '퇴행'⁵⁶⁾의 순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⁵⁷⁾

회중의 무의식은 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인 청년기로 그의 정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꿈이나 수동적 백일몽 상태에서는 어릴 적으로 퇴행을 하는데, 그런 퇴행의 이유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지 못한다. 반면 융은 퇴행이 유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융은 그 이중의 세계에 원만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생활의 여러 문제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저장소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내어 자아로 하여금 내부와 외부,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났어요.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 일은 아버지 하고 저하고 나 꾸며 놓을 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 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⁵⁸⁾

주주총회에서 장인과 아내가 그를 '전무님'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꾸민다'고 한다. 정당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무진으로 떠난다.

회중은 외부세계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츰 자기도 모르게 외부세

56) 자아가 지나치게 외부세계나 내부세계 중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자기원형은 전체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무의식적 자료를 활동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퇴행'이라고 한다. 욕구 불만이 있는 개인이 그 문제의 해결을 무의식 속에서 발견한다면, 퇴행은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G. 융, C.S. 홀, J. 야코비 공저, 설영환 역, 『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6, p.147.

57)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난 귀향과 귀경의 구조」,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1.

58) 김승옥, 앞의 책, p.128.

계의 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개성인 것으로 착각한다.

따라서 내부세계는 희중에게 싸인을 보내면서 그에게 의식화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희중은 '페르조나'를 배우고 여러 종류의 '페르조나'를 번갈아 쓰면서 사회 생활을 해 왔다. 페르조나는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인 것 같으나, 그것을 엄밀히 살펴보면 남들의 생각, 친구의 생각, 즉 외부에서 주입된 생각이다. 엄밀히 말해서 윤희중의 페르조나는 희중과 사회가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서로 타협해서 얻은 결과이지 진정한 의미의 희중은 아닌 것이다.

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빽이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⁵⁹⁾

윤희중 역시 사회적으로 부와 명성을 갖추고자 하는 페르조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희중의 내부인격은 그러한 외부적 삶에 대해 저항의 몸짓을 보인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허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희중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암시되고 있다.

풀을 뜯으면서 나는,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호걸 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그러자 나는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⁶⁰⁾

현실이 아닌 페르조나와 그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내 부정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가 페르조나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면 능력 있는 장인에 대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59) 김승옥, 앞의 책, p.148.

60) 김승옥, 위의 책, p.143.

이다.

외부세계와 맺어 주는 희종의 페르조나는 장인과 아내에 의해 보장받으며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희종의 내부세계는 억압당하게 되고 그의 무의식은 그에게 의식화되기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희종이 서울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죽고 싶다는 의미는 결코 그러한 과정이 그가 바라는 궁극적 삶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 상태는 안개로 상징된다.

안개는 물질의 네 요소 가운데 공기와 물이 혼용된 상태이다. 안개의 상징성은 대개의 경우 불확정성, 모호성 등과 통한다. 안개는 또한 공간적 상상력의 차원에서는 상승과 심연의 중간에 위치하는 존재이다. 안개는 ‘공중의 물이요 반투명의 물이며, 외계나 인간의 내면 속에서가 아니라 그 양자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이다.’⁶¹⁾

이러한 분위기는 주인공 윤희종이 무진에서 느끼는 막연한 해방감과 정체 모를 초조감에 정확히 대응된다. 즉 안개의 이미지는 복잡 미묘한 그의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뿔 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⁶²⁾

61) 김화영, 『분학적 상상력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2, p.166.

62) 김승옥, 앞의 책, p.126.

안개라는 물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편없이 약화되어 버린 이상화된 삶의 흔적 같은 것이며 무의식의 상태에서, 숨어버린 삶의 정체감을 찾으려는 정신적 고뇌와 번민이 과정이다.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안개’와 의식과 무의식의 모호한 경계인 ‘반수면 상태’는 그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그림자의 인식이 다.⁶³⁾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그림자는 보통 밖에 있는 대상에 ‘투사’⁶⁴⁾되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밖에서 본다. 그림자의 투사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동성의 관계에서 특히 자주 일어난다. 자신의 그림자가 그 대상에게 투사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무관심할 수 없고 그 대상에 얽매이게 된다.

윤희중은 무진에서 친구인 ‘조’ 그리고 후배 ‘박’을 만나게 된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누구보다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했으며, 지금은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세무서장이 되고서도 백이 좋은 배우자를 갖기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63)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124.

64) 투사는 강력한 정동 체험이다. 투사 현상은 융학파에서는 방어기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유익한 기회로써 무의식의 내용을 보고 통찰하여 의식의 세계로 되돌려 올 수 있는 기회이다. 투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실히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투사를 통해 우리의 무의식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92.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커버를 씌운 회전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없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의 도장을 받아 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未決函)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바쁘다.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⁶⁵⁾

조는 바쁜 것을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조의 모습은 서울에서의 회중이다. 회중은 무슨 일이든지 설령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나게 한다고 생각하며, 미끈하게 일을 처리해버린다는 건 우선 우리를 안심시켜준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회중과 조는 페르조나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향을 보여 준다.

“야, 이 약아빠진 놈아, 넌 뻑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 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 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맘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말하고 나서 그는 유쾌해 죽겠다는 듯이 웃어대었다.

“너만큼만 사는 정도라면 여자가 거지라도 괜찮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내 편에 나를 끌어 줄 사람이 없으면 처가 편에서라도 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말투로는 우리는 공모

65) 김승옥, 앞의 책, p.145.

자였다.

“야, 세상 우습더라. 내가 고시에 패스하자마자 중매쟁이 막 들어오는 데…… 그런데 그게 모두 형편없는 것들이거든. 도대체 여자들이 성기(性器)하나를 밑천으로 해서 시집 가보겠다는 배짱들이 꽤 씩하단 말야.”

“그럼 그 여선생도 그런 여자 중의 하나인가?”

“아주 대표적인 여자지. 어떻게나 쫓아다니는지 귀찮아 죽겠다.”

“퍽 퍽한 여자일 것 같던데.”

“퍽퍽하기야 하지. 그렇지만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집안이 너무 허술해. 그 여자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고향에서 그 여자를 데리러 올 사람 하나 변변한 게 없거든”⁶⁶⁾

빡이 좋고 돈 많은 과부와의 결혼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조의 가치관으로는 허술한 집안을 가진 여자들이 성기 하나를 밑천으로 결혼하겠다는 사고는 꽤 씩한 배짱으로 해석된다. 조가 추구하는 삶은 남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마저도 그를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빡’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의 성향은 서울에서 첫 결혼에 실패한 돈 많은 미망인을 만나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윤희중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희중과 조는 사회적 페르조나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희중의 무진 중학 후배이며 독서광인 박은 미국 피츠제럴드를 좋아하고 사범대학이 아니라 ‘교원고시 합격증’으로 국어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독한 열등 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그는 하인숙을 사랑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참, 자넨 요즘 뭘 하고 있나?”

내가 박에게 물었다. 박은 얼굴을 붉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교에서 교

66) 김승옥, 앞의 책, p.146.

편을 잡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좋지 않아? 책 읽을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난 잡지 한 권 읽을 여유가 없네. 무얼 가르치고 있나?"

후배는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까보다는 조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했어. 학교측에서 보면 자네 같은 선생을 구하기도 힘들 꺼야."

"그렇지도 않아요. 사범대학 출신들 때문에 교원 자격 고시 합격증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또 그런가?"

박은 아무 말 없이 씩씩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⁶⁷⁾

하인숙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인 박은 학교에서도 열등감에 빠져 자신감이 없는 인물이다. 무진이라는 폐쇄된 시골에서 갑갑함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에 회의(懷疑)를 갖던 과거 회중의 젊은 날의 초상(肖像) 같은 인물이 박이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위(無爲)와 똑같은 무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⁶⁸⁾

결국 속물의 전형인 조는 돈 많은 과부를 만나 출세한 회중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교원고시 합격증' 교사인 박의 열등감은, 자신의 힘이 아닌 아내의 힘으로 출세한 윤희중의 그림자이다. 회중은 무진이라는 상징적 무의식의 공간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67) 김승옥, 위의 책, p.134.

68) 김승옥, 앞의 책, p.138.

다. 그림자는 의식에 가까이 있으면서 자아가 모르고 있는 무의식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희중은 조를 바라보며 자신도 같은 부류로 보는 그에게서 동질감과 동시에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심리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별 것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테니까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면서 마음에 접어두었을 것임에 분명한 사소한 죄악처럼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치부를 보고있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이라고’ 그는 말하지만 실제 희중은 자신의 그림자를 속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이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세부서장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아마 만족하고 있을 게다. 그는 무진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다시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는 것 --- 잘 아는 체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적어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커버를 씌운 회전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⁶⁹⁾

‘조’에 대한 희중의 생각은 경멸감에서 동정심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우리 모두 조와 다름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됨으로서 희중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두어 오는 관용적 이해의 태도를 보여 줄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자는 의식화해서 의식에 동화하면 의식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림자의 부정적인 작용은 건설적인 기능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오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69) 김승옥, 앞의 책, p.145.

용기가 필요하다.

희중이 조를 희중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는 일은 자신도 <속물>임을 인정하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자기 인식이 고통과 더불어 시작된다면 희중의 그림자 만나기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성찰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에 관한 앎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제와 한 작은 부분을 해결한 것이라고 하였다.⁷⁰⁾

2)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아니마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내적 인격이 이루어진다. 응은 인간의 마음속에 독자적 인격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내적 인격을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적 인격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인격이,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인격이 내적인격으로 자리하게 된다.

원초적 여성성인 아니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남성들이 남성의 페르조나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 감성과 예감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적 인격의 표현은 남성에서는 기분(mood)으로, 여성에서는 의견(opinion)으로 나타난다.⁷¹⁾

아니마는 그림자처럼 투사된다. 때로는 자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실존하는 여성에게 투사되기도 한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⁷²⁾

70)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194.

71)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63.

무진에서 희중을 무의식의 내부세계로 끌어들이며 내부세계의 요구에 부응하게 하는 인도자로서 ‘안개’는 여성성을 띤다. 모든 사물을 그녀의 영역에 싸안아 버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헤쳐버릴 수 없게 하는 마력을 지닌 마치 여귀(女鬼)와 같은 ‘안개’의 상징성을 그의 아니마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윤희중의 심리적 갈등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즉 정신과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이 갈등은 안개가 암시하는 것처럼 주체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한다. 윤희중이 서울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그의 페르조나는 지나치게 강화되어 ‘자기원형’은 내적 인격을 회복하고자 그의 무의식을 의식화 하는 보상작용을 하는 것이다.

윙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요소를 한 곳에서는 모성 이마고, 또는 아니마로 대표되는 무의식이라고 했다.⁷²⁾ 어머니라는 이마고는 남성의 좌절과 실패의 쓰디쓴 삶에서 위로를 주는 자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여인의 아니마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들의 아니마는 어머니의 엄청난 힘 속에 붙들려 있으며 흔히 일생 동안 감상적인 유대를 남기고 남성의 운명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반대로 대담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의 용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니마의 특성은 보통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의 아니마는 흔히 쉽게 흥분하고, 우울한 기분, 번덕스러움, 불안정, 쉽게 감동하는 경향 등으로 나타난다.⁷⁴⁾

나는 무진의 골방 속에 숨어 있었다. 모두가 나의 홀어머님 때문이었다. 모두가 전쟁터로 몰려갈 때 나는 내 어머니에게 몰려서 골방 속에 숨어서

72) 김승욱, 앞의 책, p.126.

73)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79.

74) C.G. 융, 이부영 外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p.183.

수음을 하고 있었다. 이웃집 젊은이의 전사 통지가 오면 어머니는 내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우편이 오기라도 하면 나 몰래 그것을 찢어 버리곤 하였었다. 내가 골방보다는 전선을 택하고 싶어 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쓴 나의 일기장들은 그 후에 태워 버려서 지금은 없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汚辱)을 웃으며 견디는 내용들이었다.⁷⁵⁾

홀어머니로서 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노력은 가히 초인적 의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어머니의 애정은 회중의 내면에 모욕과 수치라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중의 어머니 이마고는 그에게 부정적 아니마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회중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한 때 사랑했다 헤어진 ‘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반감을 지녔지만 역시 어머니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러한 부정적 아니마에 사로잡힌 선택은 그가 외면세계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중의 영혼 안에서 부정적인 모성(母性)-아니마상(像)은 일종의 권태와 두려움과 암울한 기분들을 자아낸다.

바다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몇 시간 전에 버스에서 내릴 때보다 거리는 많이 번잡해졌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책가방이 주체스러운 모양인지 그것을 뱅뱅 돌리기도 하며 어깨 너머로 넘겨 들기도 하며 두 손으로 껴안기도 하며 허 끝에 침으로써 방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바람으로 훑 불어 날리곤 했다. 학교 선생들과 사무소의 직원들도 달그락거리는 빈 도시락을 들고 축 늘어져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이 모든 것이 장난처럼 생각되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 학생들

75) 김승옥, 앞의 책, p.130.

을 가르친다는 것,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한다는 이 모든 것이 실없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썩썩댄다는 것이 우습게 생각되었다.⁷⁶⁾

회중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장난처럼 느껴진다. 아니마의 바람직한 기능은 아니마가 보내는 여러 가지 느낌, 기분, 기대와 공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이 의외로 무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공상으로 이어진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뻘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⁷⁷⁾

회중의 이러한 공상은 그의 인격이 지나치게 외부로만 향하고 있으며, 그의 페르조나의 강화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의

76) 김승옥, 앞의 책, p.132.

77) 김승옥, 앞의 책, p.127.

희중은 ‘책 한 권 제대로 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일상에 대한 무의미와 부조리함에 대한 그의 자각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니마는 남성의 모든 여성적인 심리 경향이 인격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무드, 예견적인 육감, 비합리적인 것への 감수성, 개인에 대한 사랑의 능력, 자연물에의 감정, 그리고 무의식과의 관계⁷⁸⁾ 등으로 나타난다.

버스는 무진 읍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기와 지붕들도 양철 지붕들도 초가 지붕들도 유월 하순의 강렬한 햇볕을 받고 모두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철공소에서 들리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버스로 달려들었다가 물러났다. 어디선지 분노(糞尿)냄새가 새어 들어왔고 병원 앞을 지날 때는 크레줄 냄새가 났고, 어느 상점의 스피커에서는 느려 빠진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 끝의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빨가벗고 기우뚱거리며 그늘 속을 걸어나고 있었다. 읍의 포장된 광장도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햇볕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서 쬐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볕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두 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⁷⁹⁾

무진 전체가 썩어가는 듯한 분노 냄새, 일상적 삶이 아무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철공소의 쇠망치 소리와 병원의 크레줄 냄새, 무진의 삶이 나른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유행가 소리는 무진과 관련된 관념과 밀착되어 있는 유희중의 감각의 반응이다. 이러한 감각은 무진의 풍경을 통해 현재의 모습 속에 은폐된 과거의 자신을 읽어내게 한다. 거리도 광장도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햇빛을 피해 처마 밑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정경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무진에서의 나를 상기하는 의식의 작용과 주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78) 야코비, 권오석 역, 『C.G. 융 심리학해설』, 홍신문화사, 1990. p.39.

79) 김승옥, 앞의 책, p.131.

우리는 눈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눈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 조개 껍질을 한꺼번에 맞비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 오는 듯 했었던 것은 아니다.⁸⁰⁾

희중의 무진 방문은 사변 후 도피 시절, 폐병 치료 시절, 4년 전 애인 ‘희’와의 결별 이후, 그리고 현재 모두 네 번이다. 이와 같이 무진행은 도피해야 할 때이거나 새로운 출발을 필요로 할 때 이루어졌으며 ‘골방’, ‘공상’, ‘불면’ 등에서 연상되어지듯이 희중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이 시절을 보냈다. 그 시기의 희중의 내면의식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무진의 모든 사람들의 절망의 소리로 해석할 만큼 충분히 어두웠었다. 그러나 그것이 별들로 바뀌어 느껴지는 것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갈망 또한 얼마나 컸던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구리 울음소리는 소외된 자아의 참모습이 내면에서 터뜨리는 울음소리와도 같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의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 책에서 배운 바로씨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여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 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 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⁸¹⁾

80) 김승옥, 앞의 책, p.140.

별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갈망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이다.⁸²⁾ 그 속에는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존재합일의 상태, 즉 내적 인격과 외적 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자기 실현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희중과 별 사이에 놓인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에는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안타까운 절망감이 배어 있는 것이다.

나는 우울한 유령들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벽에 걸린 하얀 옷들을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담뱃재를 머리맡의 적당한 곳에 떨어뜨렸다. 내일 아침 걸레로 닦아 내면 될 어느 곳에, '열 두시 이후에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한 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나직이 들려 왔다. 어디선가 두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 왔다. 어디선가 세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 왔다. 어디선가 네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 왔다. 잠시 후에 통금 해제와 사이렌이 불었다.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다. 사이렌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⁸³⁾

희중은 과거의 언젠가 내면의 소망을 시각적인 별들로 환치시켜 주었던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조차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의 인식은 내면의 갈등이 극심함을 암시하고 있다.

사이렌 소리는 '금지'와 '해제'를 동시에 알리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치로운 일과 무가치한 일, 의미 있는 삶과

81) 김승옥, 앞의 책, p.140.

82)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오늘의 작가 총서- 김승옥』, 민음사, 1980, p.292.

83) 김승옥, 앞의 책, pp.142~143.

무가치한 삶의 대극에서 진정 ‘자기’를 추구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아니마의 경계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역에서 본 미친 여자는 한국전쟁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어서 무진에 온 그를 어머니가 골방에 가두었던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상기시켜 준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구내(驛構內)를 빠져 나올 때 내가 본 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책 잡아 끌어당겨서 내 앞에 던져 주었다. 그 미친 여자는 나일론의 치마 저고리를 맵시 있게 입고 있었고 팔에는 시절에 맞추어 고른 듯한 핸드백도 걸치고 있었다. 얼굴도 예쁜 편이고 화장이 화려했다.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쉬임없이 굴리고 있는 눈동자와 그 여자를 에워싸고 서서 선 하품을 하며 그 여자를 놀려대고 있는 구두담이 아이들 때문이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대.”

“아냐, 남자한테서 채어서야.”

“저 여자 미국말도 참 잘한다. 물어 볼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높은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좀 나이가 든 여드름쟁이 구두담이 하나는 그 여자의 젖가슴을 손가락으로 집적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비명어, 옛날 내가 부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한 것이었다.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였다. 6.25사변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 리(千餘里)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부르터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징발도 그후의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 버리고 있었었다. 내가 졸업한 무진의 중학교의 상급반 학생들이 무명지(無名指)에 봉대를 감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을 부르며 읊 광장에 서 있는 추력들로 행진해가서 그 추력들에 올라타고 일선으로 떠날 때도 나는 골방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행진이 집 앞

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중략) 이러한 일기를 쓰던 때를, 이른 아침 역구내에서 본 미친 여자가 내 앞으로 끌어 당겨주었던 것이다.⁸⁴⁾

청년이라면 누구나 민감한 정의와 소명 의식에 등을 돌리고 일신상의 안전을 도모한 부끄러운 기억은 그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었다. 미친 여자로 인한 회중의 퇴행⁸⁵⁾은 그의 무의식에 억압된 사건들을 들추어낸다. “자아를 해명하려는 탐구는 ‘잃어버린 시간의 탐구’로 연결된다.” 자아를 탐구한다는 테마 자체-그리고 이것이 소설 속에서도 현대인에 대해서 띠고 있는 의의-는 자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잃어버린 시간을 탐구한 프로스트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⁸⁶⁾는 말처럼 회중은 잃어버린 시간을 거슬러서 상황에 용기있게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반추의 시간을 얻고 있다.

회중은 한국전쟁 기간을 ‘골방’에서 지내는데 이광풍은 회중이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있던 모습은 웅녀의 얼굴과 같이 상징적 죽음을 겪으며 새 출발을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⁸⁷⁾고 한다. 미친 여자로 인한 회중의 의식화는 아니마의 암시를 받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남자의 페르조나 뒤에는 그 대자(對者)인 아니마가 있다. 여성의 예감 능력은 남성보다 앞선다. 여성의 개인적인 것으로 향하는 감정은 집단과

84) 김승옥, 앞의 책, pp.129~130.

85) 퇴행이란 리비도의 후퇴운동이다. 대립물은 충돌하고 상호 작용을 거듭하면서, 퇴행 과정에 의해 서서히 그 에너지를 잃는다. 진진은 정신 요소에 그 에너지를 보태지만, 퇴행은 정신 요소에서 에너지를 빼앗는다. 이 위기 동안 대립물은 꾸준히 가치를 잃고, 서서히 새로운 기능이 발달한다. 융은 퇴행이 인간 정신에 유익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량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태고유형(원형)에 활기를 주기 때문이다. 종종 인간은 이 지혜 때문에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C.G. 융/C.S. 홀/J. 야코비, 설영환 역, 『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6. pp.128~131.

86) 이동재, 앞의 논문, p.27.

87) 이광풍, 「현대소설의 제의구조연구」,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1983, p.243.

객체로 향하는 남성의 감정이 찾아내지 못하는 길을 일러줄 수 있다. 즉 남성의 내적 인격인 아니마는 현실의 여성에게 투사되어 남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영혼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술집 여자의 죽은 시체와 하인숙은 희중의 뿌리 뽑힌 자아의 정신적 폐허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자기 인식의 동기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그의 아니마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픈 과거로의 이행과 현실 인식은 자기 원형의 상징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킵니다.” 순경은 흥미 없는 말투로 말했다.

“누군데요?”

“읍에 있는 술집 여잡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씩 죽지요.”

“네에.”

“저 계집애는 아주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 것도 별수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네에”

나는 물가로 내려가서 학생들 틈에 끼었다. 시체의 얼굴은 냇물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내게는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파마였고 팔과 다리가 하얗고 굵었다. 붉은 색의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하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지난밤의 새벽은 추웠던 모양이다. 아니면 그 옷이 그 여자의 맘에 든 옷이었던가 보다. 푸른 꽃무늬 있는 하얀 고무신을 머리에 베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쓴 하얀 손수건이 그 여자의 축 늘어진 손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굴러 있었다. 하얀 손수건은 비를 맞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나부끼지 않았다. 시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냇물 속에 발을 담그고 이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그들의 푸른색 유니폼이 물에 거꾸로 비치 있었다. 푸른색의 깃발들이 시체를 옹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꼈다.⁸⁸⁾

88) 김승옥, 앞의 책, p.144.

희중은 바다로 난 방죽에서 본 자살한 작부의 시체를 보고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끼며 그 여자를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한다. 그러므로 간밤의 불면의 시간들이란 술집 여자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고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타인의 죽음으로서만 죽음은 사건으로 일어난다. 나는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타인의 죽음의 관계 속에서만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⁸⁹⁾ 또한 볼노브도 “죽음은 역설적으로 삶의 한 형태인 자신을 이룩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존재 방식이고 선택이다. 이 때의 죽음 의식은 외적 경험이 아니라 죽음을 사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내적 경험이다.”라고 말한다.⁹⁰⁾

김승옥의 소설에서 타인과의 단절은 죽음으로 표현된다. 그러한 죽음은 현실에 대한 도피적 모습을 보이는데,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버리는 극단적인 모습을 취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을 타인에게서 찾게 될 때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된다.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희중의 아니마상으로 나타나는 하인숙은 졸업 연주회 때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인 <어떤 개인 날>을 부른 음대 출신의 중학교 음악 교사이다. 그녀는 대학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무진의 생활에 권태를 느끼며 서울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개인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써 길들여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酌婦)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89) 칼 야스퍼스, 정동호 편, 「죽음」, 『죽음의 철학』, 청람, 1986, p.67.

90) O.F. 볼노브, 최동희 역,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84, p.135.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맛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맛음과는 다른 좀더 무자비한 청승맛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 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狂女)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 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⁹¹⁾

하인숙의 무진에서의 방황과 외로움은 '어떤 개인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의 거리로 대변된다. 공종구는 이 거리감을 대립적인 두 경계에 선 자의 불행한 의식의 심리적 갈등으로 보았다.⁹²⁾ 하인숙은 목소리의 갈라짐도, 청승맛음도 없는 '목포의 눈물'을 불러서 더욱 무자비한 청승맛음인 '절규'로써 희종의 의식을 자극한다. 비교해서는 안될 만큼 다른 장르의 노래가 암시하는 것은 현실과 정신,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지만 조화로운 전체성을 이루지 못하는 부조리한 삶이다. 하인숙은 자신을 사랑하는 박과 친분을 가지면서도 조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순수와 세속,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녀의 갈등상은 그녀의 노래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희종의 내적 갈등과 같다. 이러한 하인숙은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희종에게 매달린다.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급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아이,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91) 김승옥, 앞의 책, p.137.

92) 공종구,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현대소설연구』, 이회문화사, 1998, p.338.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찡 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자 흥분이 가셨다.⁹³⁾

희중은 갈등을 겪는 인숙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의 흥분은 성적인 유혹 때문이 아니라 지난 날 자신이 무진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진지한 것을 추구하던 순수함을 그녀도 지니고 있다는 연대 의식 내지는 동질감 때문이다. 속물인 조와 만나면서도 그와 대조적 인물인 박과도 관계를 유지하며, 나비부인과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그녀의 이중성은 현실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임과 동시에 현실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느끼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조금만 바래다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 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⁹⁴⁾

희중이 인숙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인숙이 바로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무진의 인물들과 술자리가 파한 후 인숙과 함께 걷는 밤길에서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바래다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희중은 하인숙이 자신의 생애 속에 끼어 든 것을 느끼게 된다. 단지 인숙에게 갖는 남다른 감정이 성적 유혹 때문이라면 훼손시키고 훼손 당하는 모든 친구들과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93) 김승옥, 앞의 책, p.141.

94) 김승옥, 앞의 책, p.139.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⁹⁵⁾

과거 폐병으로 요양하던 집에서 회중과 인숙은 정사를 나눈다. 인숙과의 정사(情事) 장면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드러나는 성적 욕망은 단순한 성적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현재의 자아로부터 과거 순수했던 자신의 본질적인 면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성적인 경험은 반드시 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느낌과 정서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사랑에 빠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적인 경험도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라는 전반적인 차원도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경험함으로써 열정과 정서적 가치를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인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회중은 인숙의 조바심을 빼앗아 줌으로써 과거 자신의 모습을 포용하게 된다. 이것은 무진에 도착한 다음 날 어머니의 산소로 향하던 중 마주치게 되는 술집 여자의 시체를 보고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현재는 마치 회중이 인숙을 자신의 과거 속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마의 표상인 인숙의 안내로 회중은 그의 내적 인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방죽의 술집 여자의 주검은 그에게 죽음이란 실존적 현상을 역설적으로 부각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야한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하인숙이라는 과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여성을 사랑함으로써 회중은 혐오했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회중

95) 김승옥, 위의 책, p.149.

의 자기원형의 상징들로서 아니마의 발현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부끄러운 영혼이 지닌 순수의 의미 - 개성화

윤희중의 안개와 반수면 상태에서의 내면의 싸움은 급히 상경해 달라는 아내의 전보로 인해 끝나게 된다. 전보는 회중이 급히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알리고 있다. 그것은 회중의 전무 승진이 현실화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번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비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 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컥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 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

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⁹⁶⁾

전보는 그의 페르조나를 뜻한다. 알맞은 페르조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윤희중의 서울행을 물신주의와의 타협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희중은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라고 편지를 쓴다. 하인숙을 서울로 데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희중은 하인숙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진행은 그에게 옛날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에 대한 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희중은 지나치게 강화된 페르조나로 인해 자신의 과거, 즉 본능과 무의식을 잃어버렸고 과거와 단절되었으므로, 그에게 인숙은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 무의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현재의 분열상을 일깨워주는 아니마인 것이다. 희중에겐 자신에게 발생한 분열을 지양하고 전일의 개체가 되려는 욕구가 있다. 그의 반복되어 온 무진행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가 사회나 이웃의 투사와 기대에 의하여 만들어진 탈인 페르조나에 집착하여 좁고 경화된 '역할' 속에 기계적인 인생을 보내지 않도록 희중으로 하여금 전 생명력을 불태우도록 하는 무의식의 힘, 그 힘은 자아의식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의 목적에 의하여 의식에 작용한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신 전체가 되도록 자극한다.

윤희중 내부의 갈등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 내부의 심리 요소들의 작용 과정으로 파악된다.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 심리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 희중에게 무의식 세계의 상징인 무진의 아니마상들은 희중이 자신의 내부세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윤희중이 심리적 갈등 상태에 있음은 이 논문의 출발이었다. 희중은

96) 김승옥, 앞의 책, p.152.

자신의 내부세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살아 왔다. 그의 갈등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융심리학은 프로이트와 달리 이러한 극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상을 부정적인 질병의 하나로 보지 않는다. 융은 오히려 이를 조화의 가능성으로 파악한다.⁹⁷⁾ 페르조나에 순종해 온 회중이 자신의 심리적 이중성으로 인해 갈등하게 되고 그의 내부세계는 그에게 의식화되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이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회중의 도달점은 그러한 갈등의 해소인 것이다.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자기’가 되는 것이다. 융은 개인을 이끄는 규정적이며 지도적인 중심을 ‘자기’⁹⁸⁾라고 하였다. 개성을 억압하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성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주고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자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로 상정될 수 있다.⁹⁹⁾ 첫째는, 육체적 아이덴티티의 기준이다. 곧 지금 우리 앞에 있는 A가 과거 내가 알고 있었던 A와 동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A의 육체는 과거의 A의 육체와 같다는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기억의 기준이다. 현재 A가 과거의 A와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A는 과거 A의 행위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과

97) 융은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신경증은 일방적이고 불건강한 의식적 태도를 보상하려는 무의식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긍정적인 기능에 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터니 스토, 앞의 책, p.94.

98) 자기란 글자 그대로 그 사람 자신을 뜻한다.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한다는 뜻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성과 같은 말이다. 이 개성은 의식에 나타나 있는 자아의 일회성이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무의식을 통틀어 전체로서의 그 사람의 전체 성품을 말한다.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p.113.

99) 이동재, 앞의 논문, p.44.

거 A의 경험들을 잊지 않고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A(현재)=A(과거)의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희중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고 있다. 그의 과거로의 '퇴행'은 자아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희중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인물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후의 희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개성화'는 있을 수 없다. 그의 여러 번에 걸친 무진 기행만으로도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원형'이 강렬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의 아니마상들이 보여 준 죽음과 광기와 사랑의 의미를 수용하였음은 그의 '부끄러움'이라는 고백이 상징하고 있다. 그는 왜 부끄러운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란 없다. 그의 서울로의 상경은 더 이상 타협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융의 심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희중의 '부끄러움'마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당연하다. 부활과 재생을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 개성화 과정은 멀고도 험한 길로서 인격이 상처를 입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¹⁰⁰⁾ 희중의 '부끄러움'의 인식은 그의 개성화 과정이 적어도 좀더 성실히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희중은 현대인의 모습이다. '자기'의 완성은 없다. 인간은 모두 과정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은 가장 확실한 과정의 순수이다. 그의 상경은 개성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김승옥은 「무진기행」을 통해 삶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이끌어내며 윤희중을 통해 현대인 모두가 피해가기 어려운 심리적 갈등상을 담아내고 있다. 갈등이 없다면 대극의 합일인 개성화 즉 자기실현도 없을 것이다. 그의 무의식로의 회귀는 억압된 과거를 재정립하여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100) C.G. 융,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2. p.166.

(2) 외부세계에 대한 저항-「야행」

김승옥의 소설 중 유일하게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야행」(1969)은 여주인공 현주가 강간을 당한 이후 <울타리>를 넘고자하는 욕구로 인하여 밤거리를 배회하는 심리적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소시민 의식의 탈피, 성(性)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통속소설, 일상성의 탈출을 시도하는 자기 인식의 극복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은 작품을 1960년대 후반기라는 산업사회의 결과물로 보려는, 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성적인 외연에 초점을 둔 미시적 해석이다.

본 고에서는 현주의 갈등 양상을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로 인한 갈등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자기 실현'에 도달하는 정신적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사회상과 시대와 인간을 두루 포함하는 문학의 거시적 안목으로서, 문학 작품의 근원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1) 여성적 페르조나와의 동일시로 인한 심리적 갈등

현주는 평범한 은행원이다. 이년 전 같은 은행의 남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는 작정으로 그들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연극>을 하며 일을 한다. 어쨌거나 그들의 연극은 지난 이년 동안 한번도 <탄로>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그 연극이 그녀의 무의식(내면세계)에서조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사

실상의 부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 직장 안에서 알게 되어 연애를 했고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였다. 부부관계라는 것도 애써 숨겼다. 직장에서는 그들은 천연 타인들처럼 행동했고 일 때문에 부득이 말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무표정한 얼굴로 '박 선생님' '미스 리'했다. 그들의 연극은 지난 이년 동안 한 번도 탄로난 적이 없었다. 이젠 두 사람 자신들도 자기들이 연극을 하고 있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도 이젠 이미 습관이었다.¹⁰¹⁾

사실상의 부부라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직장 생활에서의 현주의 <연극>은 그녀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페르조나이다. 연극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허위의 삶이 무의식으로 억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 양식, 일종의 기능 콤플렉스를 페르조나(Persona)라고 했다. 그런데 페르조나는 그 사람 고유의 자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외투나 모자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아 속에 있는 남들의 눈에 비친 '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나'이다. 현주는 이러한 '나들'에 맞추어 살면서 내면 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협에 처해 있다.

그 여자의 직장에서는 기혼 여성은 쓰지 않았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직원은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혼여성이어도 무방한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현주의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할 자신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수입만으로써는 생활이 주는 평범한 행복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좀더 저축이 붙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버리고 싶지가 않았다.¹⁰²⁾

현대 산업사회의 물신주의(物神主義)는 존재론적인 삶에 의미를 두지

101) 김승옥, 「야행」, 『김승옥 소설 전집 1권』, 문학동네, 1995, p.267.

102) 김승옥, 위의 책, p.268.

않는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주는 거짓된 삶을 살아 왔다. 저축이 불어난다는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페르조나에 지배되어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주 또한 심리적으로는 정신적 욕구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페르조나에 압도된 현주는 자기의 본성에서 소외당하게 되며,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조나와 퍼스낼리티의 미발달한 부분의 갈등 때문에 긴장 상태 속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그 여자는 무의식중에 자기 남편을 향하여, 집에서 하듯 ‘여보!’하고 불렀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갳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편 곁에 있던 행원들이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 여자는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제껏 그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여자였다. 남편이 얼른 ‘왜! 내가 미스 라 남편 같소?’하고 농담으로 얼버무렸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실수는 하나의 농담인 듯 끝날 수 있었지만 그 여자 자신에겐 무척 충격적인 것이었다. 연극이 탄로날 때가 온 것이다. 연극은 탄로나야 한다고 그 여자는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¹⁰³⁾

현주의 말실수는 남편의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무마되었지만 그녀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삶에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는다. 현주는 가식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탄로’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죄의식을 함의(含意)하고 있는 말이다. 멈출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처럼 그녀는 삶에 진한 피로를 느끼게 된다. 현주의 무의식은 의식의 일방성을 깨우치고 의식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현주의 정신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암시를 줌으로써 보상작용을 한다.

번잡한 육교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여자는 샌달의 가죽끈으로 가지런

103) 김승욱, 앞의 책, p.277.

히 내밀어져 있는 자기의 발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들은 땀과 흠먼지로서 남보기에 창피할 만큼 더럽혀져 있었다. 그 부분만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그 부분만이 참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 같다고 그 여자는 느끼고 있었다.¹⁰⁴⁾

현주는 자신의 휴가가 끝나는 날,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것은 더러움이었다. 더러운 일상은 지금껏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순간 그 더러움만이 참으로 자신의 것인 듯하다. 현주의 ‘더러움’은 바로 현주의 그림자이다. 지금껏 현주는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돈과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생활에 대한 그녀의 기대는 자신의 내면세계의 바램을 도외시하게 했었고 그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다. 현주야말로 <연극>까지 하면서 페르조나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물론 언젠가는 그들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청첩장을 돌리고 은행장을 주례로 모신 결혼식을 올릴 터였다. 현주는 퇴직금을 받고 즐거이 직장을 그만둘 것이며 남편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때쯤은 계장이 되어 있을 남편에게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저녁식사는 우리 집에 와서 하시라고 하세요”라고 말할 터였다. 그것은 불안한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 부부의 연극을 확실히 보상해 주고도 남음이 있을 즐거운 꿈이었다.¹⁰⁵⁾

위 인용문은 현주가 추구하는 페르조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첩장을 돌리고 하는 정식 결혼식, 퇴직금, 남편의 계장 승진 등은 현주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실논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현주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104) 김승옥, 앞의 책, p.267.

105) 김승옥, 앞의 책, p.268.

없다.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의 요구를 외면하여 정신적으로 갈등하게 된다면 오히려 행복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

현주가 페르조나를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며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자아를 페르조나와 완전히 동일시할 때, 현주의 자아는 무의식의 내면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휴가를 고향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날, 현주는 대낮에 낮선 사내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다.

그때였다, 낮선 사내의 억센 손이 그 여자의 팔꿈치 근처를 움켜쥔 것은. (……) 한번도 본 기억이 없는 사내였다. (……) 그들은 백화점을 끼고 돌아다. 그들은 차도를 건너질러갔다. 도중에 차도의 복판에서 차가 몇 대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고 잠깐 걸음을 멈춘 동안, 사내는 문득 “날씨가 몹시 덥죠?” 하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여자에게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중얼거림 같았다. (중략)

사내의 목적지가 가까운 다방이나 최악의 경우 파출소쯤이려니 생각하고 있던 현주는 사내가 회현동 골목 속에 새로 단장한지 오래지 않은 듯한 이층건물 속으로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그리고 고개 한 번 돌려보는 법 없이 자기를 끌고 들어섰을 때는 너무나 놀라서 아래턱만 덜덜 떨 뿐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관이었다.¹⁰⁶⁾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사내는 현주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한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던 낮선 사내의 이끌림이 있는 후 이 일은 단순한 봉변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내부에 커다랗게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그 일이 그 여자에게 남기고 간 흔적은 뚜렷해졌

106) 김승옥, 앞의 책, p.271.

다. 마치 피와 고름과 살덩이가 범벅이 되어 뭐가 뭔지 형체를 알 수 없던 상처가 오랜 후에 한 가닥의 허연 흉터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듯이 그 사건은 그렇게 그 여자의 내부에 자리잡혀간 것이었다.¹⁰⁷⁾

현주는 이 일로 인해 타성(惰性)으로 굳어져 버린 일상 생활에 대해 깊은 회의를 하게 된다. 그 사내는 오직 그러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즉 자신의 내면의 욕구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현주는 일상에 매몰된 자신의 삶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생각한다.

처음 현주가 남편을 설득해서 속임수를 써 가면서까지 추구하던 안락한 생활은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오히려 현주의 소망은 얼마간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태연히 꾸미고 있는 남편과의 거짓된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현주는 사내의 억센 끌어당김을 통해 타성과 속임수를 떠나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 한다.

마침내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아아, 마침내 내 연극이, 속임수가 탄로나고 만 거야. 탄로나고 말았어. 속임수를 썼던 죄로 나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나를 고문할까? 아냐, 고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백해 버리겠어. 아냐, 그럴 필요는 없지. 물론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나에겐 자백할 게 아무 것도 없어지는 셈이지.¹⁰⁸⁾

현주의 죄의식이 드러나는 인용문이다. 사내의 침묵에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탄로 난 것이라며 불안에 떠다. 이 불안감은 그녀의 내적 인격이 자신의 삶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다만 현주는 지금까지 그 암시를 외면하여 왔을 뿐이다.

107) 김승옥, 위의 책, p.272.

108) 김승옥, 위의 책, p.270.

‘자기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그림자의 의식화는 필수적이다.

그 사건이 생긴데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불량배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날 육교 위에서 손목을 잡힌 사람은 그 불량배였는지 자기였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었다. 마침 한 사람이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기는 그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를 데려다 주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곳’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의 정확한 줄거리라고 그 여자의 의식은 말했다.¹⁰⁹⁾

현주는 그 사건이 생긴데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은 사내가 아니라 자신과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타성에 젖은 ‘이곳’으로 인식한다. 거짓으로 지탱하고 있는 일상이 더러움으로 보이며 그것을 만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남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주가 넘고자하는 ‘올타리’는 타성에 젖어버린 생활의 페르조나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남편과 현주가 만든 것이다. 남편은 이제 <연극>이 더 이상 <연극>이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연극>을 한다. 현주는 그런 남편에게 증오심을 가진다.

그렇다. 그 여자는 자기가 증오하고 있는 게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 아마 그들의 옷차림 때문이었을까? 서울 중심지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월급쟁이들의 그 어스비슷한 복장 때문에 그 여자는 잠깐 그들과 자기 남편을 혼동하였던 것일까?¹¹⁰⁾

109) 김승옥, 앞의 책, p.272.

110) 김승옥, 위의 책, p.275.

남편에 대해 현주가 의식의 저변에 감추고 있는 증오는 현주의 또 다른 그림자이다. 현주는 거짓된 일상을 떠나야하고 파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마주친 깨끗한 외투를 입고 기름칠하여 단정한 머리를 한 월급쟁이 사내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강한 증오심’을 느낀다. 친구의 구토를 진정시켜보겠다는 진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러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친구의 등을 내리치며 깔깔대고 있는 자의식 없는 캄패들처럼 욕설을 지껄이는 거리의 사람들과 남편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현주의 그림자에 다름 아니다. 남편과 사내들의 말쑥한 외관은 그들이 지향하는 ‘생활’의 모습이다. 그것은 양옥집 생활처럼 남 보기에 번듯한 것이지만 사회에서의 안정과 편리를 위하여 반성적 의식과 감각을 반납한 ‘그림자 없는 사람들’¹¹¹⁾이다.

현주는 이러한 생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타성에 젖은 자신을 깨뜨려줄 사건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기만성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된다.

최근에 와서 그 여자의 욕구는 비틀거렸다. 그 여자는 자기의 욕구가 지나치게 무모하고 반사회적이라는 걸 그 욕구의 싹이 자기의 내부를 자극하기 시작하던 처음부터 깨닫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여자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갖도록 해준 어떤 경험이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자각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되는 울타리를 감히 넘지시 넘도록 한 것이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결코 무모하지도 않으며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며 반

111)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장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선한 마음과 행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온갖 사회악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이른바 ‘그림자 없는 사람’이다. 이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위선자이거나 이중인격자, 또는 각종 노이로제를 일으킬 조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p.167.

사회적인 것도 아닐 수 있으리라.¹¹²⁾

현주는 강간당한 사실을 단순한 봉변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 일은 현주의 엉뚱한 욕구를 표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현주는 일상의 울타리를 넘고자 한다. 현주는 그 욕구 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있다고 생각한다. 빛이 보이는 데 어둠 속에서 그 빛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무모하고 반사회적인 욕구가 무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식적이며 사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여자는,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포로를 상상한다. 그는 철조망의 한 곳이 허술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것을 발견하자 그는 자기가 이 수용소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그리고 예정했던, 어느 달 없는 밤에 그는 철조망을 넘어선다. 어느 입장에서 보면 그의 행위는 분명히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의 욕구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할 것인가.¹¹³⁾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탈출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현주는 일상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뛰어 넘으려는 그 욕구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상이 더러운 속임수이자 연극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있는 한, 그 욕구는 무모한 욕구가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시도되고 모색되어야 할 욕구이다. 그 욕구는 현주 혼자만의 욕구도 아니다. 일상의 더러움을 자각한 모든 여자와 남자들의 욕구인 것이다. 현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밤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고자 ‘야행’을 하게 된다.

112) 김승옥, 앞의 책, p.266.

113) 김승옥, 앞의 책, p.266.

그 이후로 그 여자는 가끔, 자기가 8월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넘어서 본 적이 있던 그 울타리를 넘고 싶다는 욕구를 발작적으로 강렬하게 느끼곤 하였다. 드디어 어느 날 밤, 밤거리로 나섰다.¹¹⁴⁾

어느 날의 늦은 밤 버스 속에서 내다 본 명동 거리가 낮의 익숙함과는 달리 무엇인가 어색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건 여자 앞에 다가서서 말을 건네는 술 취한 남자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 이 날의 경험을 계기로 현주는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넘어서 본 적이 있는 울타리를 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 후로 현주는 자주 밤거리를 어슬렁거리곤 하는 것이다.

구속과 억압으로서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현주의 방법은 ‘성적 욕망의 그림자 드러내기’이다. 김주연은 ‘김승옥 소설의 전반적인 특색이기도 한 섹스에의 취재는 그것이 인간의 개성 의식에 문을 열어 주는 가장 편리한, 그러면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소설의 현실감 구성에 강점을 차지한다.’¹¹⁵⁾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은 여성들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성의 주도자는 남성이어야 하고 여성이 주도적일 경우 그 여성의 인격과 도덕성마저 저울질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에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이라는 것은 여성이 아직도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마저 남성들보다 미약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주의 ‘야행’은 이러한 의미에서 남성 중심의 외부 세계에 대한 강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윤리를 거부하고 고정관념을 버림으로써 현재 삶의 전복(顛覆)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주는 더 이상 밤거리와 남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젊은 여성이 다니기에는 위협의 시간인 밤은 현주의 계획을 실행하게 해 줄 알맞은 시간이다. 또한 여성이 부수적 삶을 살아가도록 은근히 조작해 온 남자

114) 김승옥, 위의 책, p.275.

115) 김주연, 「개성화의 추구」, 『한국현대문학전집』 제 24권, 문학사상사, 1986, p.379.

들은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현주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줄 보조자이다. 그들이 있어야만 현주의 탈출도 가능하다. 그림자는 살려서 체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에게 말을 붙인 사내들을 따라 갔고 어떤 여자들은 가지 않았다. 그 여자들의 대부분이 여급이라는 건 차림새로 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사내를 따라간 여자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봐서 낯선 사내와 동행한다는 일에서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버스 속에 앉아서 창을 통하여 그들을 발견했을 때, 현주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여자들이 공공연하게 많다는 사실을 하나의 충격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¹¹⁶⁾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밝히기 위한 현주의 야행은 통쾌하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성의 성적 도구로 억압당해 왔다. 실제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는 여자는 무수히 많은 것이다. 현주는 그 사실에 새삼 충격을 받는다.

달리는 버스 속에서 그 여자는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일까? 울타리를 넘다가 그들은 감시병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군견(群犬)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뒤를 쫓고, 서치라이트의 동그란 불빛이 그들의 등을 끝없이 쫓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여자는 그들이 무사히 도망했기를 빌고 싶었다.¹¹⁷⁾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는 감시병의 충격을 피해 가야 하고, 뒤를 쫓아 오는 군견의 위협을 이겨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주의 간절한 바람은 확일화되고 타성에 젖은 현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감시병과 군견은 현주에게 있어서 사회

116) 김승옥, 앞의 책, p.274.

117) 김승옥, 앞의 책, p.274.

와 남편으로 대표되는 남성일 것이다. ‘올타리’라는 단어의 상징성은 ‘보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속’이었던 것이다.

2) 내적 동반자로서의 아니무스

여성 속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 부른다. 여성의 외적인격인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내적인격이다. 아니마가 에로스이며 감성과 예감 능력이라면, 아니무스는 로고스 즉 사유와 판단능력이다.¹¹⁸⁾ 그 최고의 경지는 영적 진리로 이끄는 안내자이며 그 가장 아래의 단계는 육체적인 힘을 가진 남성성이다.¹¹⁹⁾ 마음의 구조에서 아니무스는 의식의 중심인 ‘나’의 무의식적 그림자와 ‘자기’ 사이에 걸쳐 있다. 아니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혼과 같은 것이다. 자아가 어찌지 못하는 그 자체의 힘에 끌려 그 이미지(像)를 생각하고 쫓아가고 붙잡으려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등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느 새 커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다. 또한 남녀의 사랑에서 스승, 친구, 아버지, 누이 등의 이성에게 이끌림을 당했던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아니무스 원형의 투사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이성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내부

118)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143.

119) 아니무스는 네 단계의 발전 과정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단순한 신체적 힘-예컨대 운동 경기의 우승자나 레슬링 선수-으로 나타난다. 다음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주도성과 계획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교수나 목사의 상으로 나타나며, 흔히 그 ‘말씀’이 된다. 마지막으로 아니무스의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은 의미의 구체화이다. 이 최고의 단계에서 그는 종교적 체험의 중계자이며, 이에 따라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C.G. 융,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p.201.

에서도 그러한 남성성이 존재한다.

그 여자는 자기가 확실히 그 사내에게 매달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았다. 타성이 그 여자에게 붙어 넣어준, 그 사내에 대한 저항을 사내는 얼마나 멋있게, 꼼짝할 수 없도록 때려 누웠던가! 땀, 그렇다. 실 줄 모르고 솟아나 온 몸을 목욕시키던 땀은 그 여자의 '이곳'이 패배의 쓰라림에 흘린 눈물은 아니었던지!¹²⁰⁾

현주에게 사내와 자신의 땀은 자기의 삶에 대한 패배의 눈물로 인지된다. 현주의 아니무스는 현주의 의식에 성찰과 숙고를 마련한다.¹²¹⁾ 현주는 자신의 타성을 멋있게 없애준 사내에게서 타성에 젖어 이곳을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얻어낸다. 아니무스 의견은 현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허위적 삶에 대한 자각을 촉구한 것이다.

더구나 짓궂은 장난인 듯이 가장하고 있는 사내들의 그 행위 속에는, 대낮의 생활로부터, 이 도시로부터, 자기의 예정된 생활로부터, 자기가 싫증이 날 지경으로 잘 알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해 보고 싶은 욕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현주는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여자는 알고 있었다. 도망할 수 있는 사람과, 욕구는 있건만 그러지 못하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¹²²⁾

누구나 싫증이 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도시와 생활과 자신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어한다. 오직 현실원칙만이 지배적인 도시는 인간 관계의 진실을 도외시하게 만든다. 생활이란 금전을 떠나서 영위될 수 없으며, 자신은 그런 도시와 생활에 어느 새 길들여져 있다. 그러므로 벗어나려는

120) 김승옥, 앞의 책, p.273.

121)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p.74.

122) 김승옥, 앞의 책, p.262.

욕구는 있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현주에게는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잠재된 힘이 있다. 그런 잠재력을 일깨워서 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주 자신에게 달려 있다.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무의식의 암시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 여자의 서성거림은 번번이 그런 식으로 끝나곤 하였었다. 차츰 그 여자는 깨달았다. 사내들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거의 모두가 조건부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사내들은 영원히 '이곳'을 떠날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잠깐 울타리를 뚫고 밖으로 나가 본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니 비쳐 그것도 아니다.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만 한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¹²³⁾

현주는 사내들이 욕구는 있지만 '이곳'을 벗어날 의도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울타리만 만지작거리며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사람들은 울타리를 인식하며 벗어나려고 시도를 할지라도 '조건부'의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현주는 타성에 젖은 삶을 인식하고 현실에 저항을 해 보지만 기존의 삶을 과감히 변화시키려는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 사실은 현주를 쓸쓸하게 만든다.

문득 뜻하지 않은 느낌이 그 여자의 몸 속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쓸쓸함이었다. 외면적으로야 자신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일 때문에도 느껴지는 순수한 쓸쓸함이었다. 그것은 가령, 그 여자가 언젠가 극장에서 뉴스 영화를 볼 때 느껴본 적이 있던 느낌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베트남 전선으로 가는 군인들이 군함의 갑판 위를 새까맣게 덮고 있었다. 그들은 꽃다발을 하나씩 목에 걸고 웃으며 부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

123) 김승옥, 앞의 책, p.277.

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제나름의 색다른 인생에 의하여 싫든 좋든 이미 강한 개성을 가져버린 늙은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야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게 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우리 종족의 얼굴의 특징이라 하여 그 스크린 속에서 붙잡아 본 것들은 아마 거의 정확한 것이었을 거다. 그 특징들에 의하여 현주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도무지 군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군식의 유니폼 때문일까? 뉴스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그 여자는 집에 돌아가는 대로 곧, 한국 남자들이 입어서 군인답게 보일 수 있는 유니폼을 디자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디자인도 그들을 그렇게 보이게 할 수가 없으리라는 단정을 막연히나마 내리고 있었다. 문득,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꽃다발을 목에 두르고 웃으며 손을 짓고 있는 한 군인이 클로즈업되었다. 카메라맨은 어떤 의도로써 그 젊은이를 클로즈업시켰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화면을 보면서 현주는 치밀어오르는 감동에 아랫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그 화면 속의 인물이야말로 그 여자가 발견한 그 특징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납작한 이마, 술이 짙은 눈썹, 크지 않은 눈, 광대뼈가 약간 불거졌으면서도 가름한 얼굴... 현주는 그 젊은이를 군함에 태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마터면 화면을 향하여 두 팔을 내밀 뻔하였다. 그러나 화면은 곧 바뀌어서, 나무끼는 태극기의 물결로부터 군함은 점점 멀어져갔다. 그때 그 여자는 지친 듯 허탈해지면서 느릿느릿 밀려드는 쓸쓸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¹²⁴⁾

베트남으로 떠나는 군인들은 곧 어떤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꽃다발을 걸고 웃는다. 현주의 쓸쓸한 느낌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주는 안락한 부의 향유를 기대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왔다.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모르면서 웃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삶에 대해 무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을 생각나게 한 것이다. 현주는 젊은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 삶의 근원적 비애를

124) 김승옥, 앞의 책, pp.263~264.

느낀다.

아니무스상은 다수의 심판관, 연인, 일단의 괴한, 제복입은 군인들, 때로는 거인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¹²⁵⁾ 이 군인들은 현주에게 나타난 집단적 아니무스상이다. 지금 현주를 쓸쓸하게 하는 즉, 인생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진행되는 것 같은 무기력감은 부정적 아니무스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아니무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는 정신, 용기, 진실성, 정신적 깊이와 내면화의 최고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내가 가버리고 난 후에야 그 여자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포와 혼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내의 억센 끌어당김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 여자의 내부에서 공포와 혼란의 뜨거운 늪이 들끓지 않고 만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사내의 손이 그 여자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끈 이후에야 생길 터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지난 여름에 자기를 습격했던 그 사내가 몹시 그리워질 지경이었다.¹²⁶⁾

현주가 만나고 싶은 그 사내는 그녀의 무의식의 심혼상인 아니무스이다. 그녀가 밤거리를 헤매는 것은 사내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내들을 통해 ‘자기’라는 내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현주는 자신이 사내의 행동을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현주는 그 사내와 같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갈 남자를 찾기 위해 밤거리를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현주의 아니무스는 힘있는 남성상으로 나타났다. 현주가 이곳을 벗어나는데는 확신과 신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힘있는 남성상은 바로 ‘확신’과 ‘신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 아니무스에 대항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

125)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144.

126) 김승욱, 앞의 책, p.277.

니무스는 위협을 그치고 창조와 힘이 된다고 했다.¹²⁷⁾ 아니무스에 사로잡힌다함은 자기의 판단이 무의식의 부정적 의견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무의식성을 고쳐서 자기의 내면세계와 의식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실현의 과제이고 보면 아니무스에 의한 사로잡힘을 깨닫는 것은 현주의 자기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느 날 밤, 그 여자는 좀 색다른 사내를 만났다. 어쨌든 그 사내는 그 여자의 손목을 힘차게 잡아끌고 간 것이었다. 그 사내가 목적지로 정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어느 골목 속의 호텔이 저만큼 보였을 때 그 여자는 기다리던 공포와 혼란이 증기처럼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 여자 자신이 그것을 객관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의 양은 적었지만 어떻게 그것은 그 여자의 내부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들은 호텔의 현관 앞에 이르렀다. 그때 문득 여자는 사내가 자기의 얼굴을 돌아보고 있는 걸 보았다. 사내는 마치 “정말 괜찮겠느냐?”고 그 여자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의 공포와 혼란은 깨끗이 스러져버리고 그 대신 사내에 대한 혐오감만 잔뜩 부풀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 골목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속에서 그 여자는 8월의 그 사내가 여관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자기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¹²⁸⁾

그녀가 탈주하고자 하는 곳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즉 거짓이 아닌 참의 세계이다. 현주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얼굴이 가진 윤리적 가치의 세계는 이곳을 고수하고자할 뿐이다. 비겁함은 얼굴을 보는 행위로 나타난다. 얼굴은 이곳의 고정관념이다. 현주는 자신

127) 이부영, 앞의 책, p.145.

128) 김승옥, 앞의 책, p.278.

이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상대는 없던 용기가 부쩍 솟아올라 즐거운 질박감이 들어 그때의 사내처럼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밤거리에서 만난 사내들은 현주의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슬슬 물러가 버린다.

‘자기’가 되는 고통의 여정에는 비겁과 의혹이 따라서는 안된다. 현주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아니오’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현주가 바라는 것은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자기의 욕구는 반드시 사내들이 자기네의 욕구를 과감히 실천할 때 함께 성취될 수 있음을. 그렇다, 사내가 그 여자의 내부에 공포와 혼란을 일으켜 놓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의 더러움을 자백할 수 있을 것인가!¹²⁹⁾

현주는 낯선 사내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자각했다. 현주가 거리에 서 서성거리는 행위는 결국 정체성의 확인 작업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포와 혼란이 없이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제야 그 여자는 자기의 욕구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8월의 그 사내와 똑같은 사내가 얼마든지 있다고 는 그 여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 그 여자의 욕구는 비틀거렸다. 이따금 그 여자는 그 공포와 혼란이 없이도 사내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곤 하였다. 창녀들처럼 아니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처럼. 그러나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그러한 의식(儀式)으로써 포장하게 될까 봐 하는 것이었다. 막연하나마 그 여자는 만약 자기에게 공포와 혼란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 마침내 의식만이 남게 될 뿐이며 그리고 그것은 파멸이라는

129) 김승옥, 위의 책, p.277.

걸 알고 있었다.¹³⁰⁾

현주가 느끼는 공포와 혼란이란 성적 욕구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자아 반성적 의식이다. 성(性)은 인간 존재의 근간이면서도 금기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성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성에 관련된 언표조차도 터부시되거나, 음성화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의 형성에서 성의 역할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성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명현상을 근본적으로 '성충동'과 '죽음충동'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인류문화란 바로 이 성과 죽음, 생의 충동과 파괴충동간의 싸움이 행해지는 것이며, 문화란 에로스에 봉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¹³¹⁾ 예술은 리비도라는 성본능의 승화작용으로 보고 있으며, 예술의 심리적 기초도 예술가의 유아기 성욕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두고 있다.

문학에서 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D.H. 로오렌스이다. 성을 프로이트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는 성의 매력이 곧 미(美)라고 하였다.¹³²⁾ 성과 미는 마치 생명과 의식처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성과 미에 부수하여 성과 미로부터 새어나오는 지성의 활동이 곧 직관인 것이다. 로오렌스는 성문학의 도덕적인 근거를 “남녀간의 참되고도 활발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작품”¹³³⁾이라 하고, 인생에서 중심 문제는 남녀간의 관계 그 자체라고 하였다.

130) 김승옥, 앞의 책, pp.278~279.

131) 프로이트, 김종호 역, 『문화의 불안』, 박영사, 1983, pp.122~123.

132) 황주환, 「김승옥 소설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p.62.

133) 로오렌스, 김병철 역, 『성과 문학』, 정음사, 1978, p.92.

김승옥의 작품에 있어서도 성은 사건, 언표, 성적 이미지 등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때 성은 성교 및 다양한 성적 표현과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성은 “본질적으로 트임과 넘침의 의미를 지니고 성은 일상성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지니고”¹³⁴⁾있다.

현주는 사내의 억센 끌어당김을 통해 이곳의 타성과 속임수를 떠나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 속에서 공포와 혼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주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성역할의 관념을 지녀 온 평범한 여성이다. 따라서 현주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주에게 확실히 해 둘 것은 그러한 욕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의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주가 사내들이 과감히 자신을 이끌 때에만 일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남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공포와 혼란이 있어야만 자신의 더러움을 자백할 수 있고 그 일탈이 형식적인 일탈이 되지 않고 비로소 반성과 고민과 모색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의 자리에 의식을 대신 들여앉히려는 유혹은 그 여자의 서성거림이 잦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 유혹을 그 여자가 겁내는 까닭은 그것이 그 여자의 내부에서 오기 때문이었다. 가령, 조금 전, 그 사내의 얼굴이 그것이었다. 아니 그 사내가 젊고 호감가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본 이후에 그 여자의 내부에 번진 그 쓸쓸한 느낌이 그것이었다. 스크린을 향하여 하마터면 팔을 내밀 뻔했던 그 유혹이었다.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었다.¹³⁵⁾

134) 쇼르쥬 바파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p.234.

135) 김승옥, 앞의 책, p.279.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이란 현주 자신을 포함한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욕구를 ‘의식’으로 포장하고픈 유혹은 현주 자신 혹은 그의 남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한 근원적인 쓸쓸함이자 안타까움이었던 것이다. 현주는 모든 과정과 일탈이 관성화되고 타성에 젖어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 경계심과 방황이야말로 현주의 일탈을 일상으로부터의 순간적인 탈출이 아니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것은 현주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남자들이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일상적 삶과 생활의 허구성과 기만성, 답답함을 어떻게든 깨뜨려보려는 저항이다.

그러나 이곳의 거리에 존재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처럼 비굴한 타협으로 살아가는 속물들뿐이다. ‘쓸쓸한 느낌’과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자신의 내면을 도외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현주의 슬픔이다.

자기의 아니무스 문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만일 현주가 그녀의 아니무스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아니무스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이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현실들에 직접 대면한다면, 그녀의 아니무스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내적 동반자로 바뀔 수 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주도성, 용기, 객관성, 그리고 영적인 지혜 등의 성질을 부여할 것이다.¹³⁶⁾

136) 유정희, 「융학과에서 보는 여성심리」, 『신경정신의학 제 1호』, 1992, p.13.

3)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의 의미 - 개성화

르페브르¹³⁷⁾가 말하고 있듯이 일상이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타성화된 일상적 삶에 충격을 가하기 어렵다.¹³⁸⁾

현주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이제껏 내면의 요구를 도외시키고 오직 자신의 페르조나를 살리기 위해 살아왔던 속된 삶에 대한 저항은 개인에게 있어 혁명과도 같은 엄청난 변화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과정은 고통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현주는 기꺼이 밤거리로 나서서 불합리한 이중의 삶을 대면하고자 한다.

‘개성화 과정’은 한 개인의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인간 무의식의 심층에는 자기 자신으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체가 사회적인 평가나 이상(理想)에만 맞추어 살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소외 또는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여자의 외면적인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남편과는 이십 분 가격으로 은행에 출근하였고, 은행에서 두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접촉을 피했고, 부득이 말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엔 ‘박 선생님’ ‘미스 리’했다. 하루 일이 끝나면 남편은 으레 다른 남녀 행원들과 함께 문을 나섰고 그 여자 역시 다른 남녀 행원들 틈에 끼어 문을 나섰다. 그 후에 그들이 집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은 대중 없었다.¹³⁹⁾

137)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실 세계의 일상성』, 일념, 1995, p.45.

138) 서은경, 「김승옥 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p.28.

139) 김승옥, 앞의 책, p.273.

현주의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고, 탄탄하다고 믿어 왔던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현주는 스스로를 가치롭게 만드려는 자기 원형을 지니고 있다. 현주가 페르조나에 집착하여 기계적인 인생을 보내지 않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촉진하는 무의식의 힘이 의식에 작용한다. 따라서 현주의 ‘야행’은 무의식의 힘이 작용하여 개성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다.¹⁴⁰⁾

이 거리의 어디로부터 지금 자기의 귀가 듣고 있는 험쩍이는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일까? 누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왜 이 거리에서 지금 공포와 혼란의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일까?¹⁴¹⁾

현주의 귀에 들리는 숨소리는 연극이 진행되는 <‘이곳’>을 벗어나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한다. 그 곳은 공포와 혼란이며, 구원이자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다. 누군가 현주를 부르는 험쩍이는 숨소리 그것은 바로 현주 내면의 외침이다.

사내 손의 그 섬세한 조작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다. 공포 속의 안심이라고나 할까, 그 여자는 그런 걸 느꼈다. 그 여자는 손목을 빼내기를 단념하였다. 그러자 그 고리가 점점 오므라들어 움직이기를 멈춘 여자의 손목을 아프지 않은 한계 안에서 조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문득 자기의 손과 사내 손의 그 땀에 젖어 미끄러운 틈으로부터 생명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북소리처럼 둔중했고 생선 아가미처럼 가뻣다. 사내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아닌 전연 낯선 생명이 지금 마약 땀에 젖은 손과 손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것 같았다.¹⁴²⁾

140)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1978, pp.98~106.

141) 김승옥, 앞의 책, p.274.

142) 김승옥, 앞의 책, p.271.

‘사내의 생명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도 아닌’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생명은 전일적 존재인 ‘자기’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선 생명’이다. 현주는 그 생명을 찾기 위해 ‘야행’을 시도한다. 그 시도가 안일한 것이 되고 타성에 젖어 다시 일상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현주는 기꺼이 공포와 혼란을 필요로 한다. 자기실현의 목적은 자기를 잘못된 페르조나에서 해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 상(像)들로부터 오는 암시에서 해방되는 데 있다고 하였다.¹⁴³⁾ 현주는 이미 자신이 찾는 사내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아니무스는 오직 여성의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안내자일 뿐이다. 계속되는 그녀의 ‘야행’은 고통을 의미한다. 그녀의 의식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이제 개성화의 문(門)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자, 그만 울어. 이젠 경찰에 가서 강간당했다고 고발해도 돼. 난 감옥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거든. 당신의 팔뚝이 몹시 매끄러워 보이더군. 내 손속에 넣고 만지고 싶었어. 당신을 그냥 지나쳐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뭐 아무 것도 아니지. 당신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인가? 어어, 굉장히 더운 날이지? 그만 울어요, 여름에 울면 감기 걸린데.”¹⁴⁴⁾

낯선 사내는 현주의 내부 인격으로서의 아니무스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인가?”라는 사내의 물음은 현주로 하여금 자신의 의식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한다.

현주는 현실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에 충실한 인물로 변모해 간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갈등은 거짓 화해에 의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는 정반합으로 요약되는 헤겔의 변증법과 달리, ‘합’의 상태를 부정하

143)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p.95.

144) 김승옥, 앞의 책, p.272.

는 부정의 변증법에 의해서만이 예술은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결국 예술은 특유의 자율성과 부정성으로 현실에 대해 거리를 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저항’이란 집단적 주제에서 떨어져 나온 개인이 불구적인 현실에서 끊임없이 동질화되어 가는 사회적 전체성에 맞서 간직하는 부정의 자세에서 이루어진다.¹⁴⁵⁾ 따라서 현실과의 일치를 거부하는 현주의 태도는 현실에의 도피가 아니라 저항이며, 더 나은 삶으로의 지향인 것이다.

“조용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절 따라와 주세요.”
말하고 나서 사내는 현주의 팔꿈치를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방금 올라왔던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휘청거리며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사내의 절박한 표정에 속았던 것이 아니었다. 공포가 그 여자의 복구멍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 사내가 품고 있는 오해가 내가 해명해 줄 수 있는 오해였으면…….¹⁴⁶⁾

사내가 품고 있는 오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주의 오해이다. 현주가 내면의 욕구를 소홀히 했음이다. 사내는 자신의 욕구를 실행함으로써 현주가 의식의 세계에 자신을 몰두한 결과 정신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는 삶을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자신의 가치 판단이 오해라고 자각하게 한다.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이었다.¹⁴⁷⁾

현주가 바라는 것은 ‘파멸’이 아닌 ‘구원’이다. 그녀는 가식적인 일상적

145) 차봉희, 「아도르노의 부정의 미학」, 『비판미학』, 문학과 지성사, 1990, p.125.

146) 김승옥, 앞의 책, pp.269~270.

147) 김승옥, 앞의 책, p.279.

삶에서 우연을 공포와 혼돈의 원인으로써, 그리고 우연으로부터의 공포와 혼돈을 파멸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으로 여긴다. 이러한 현주의 의식은 페르조나에 보다 자유로운 인간형임을 보여 준다. 현주의 지향점이 그러하다면 현주의 심리적 갈등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개성화는 기나긴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주는 자기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상징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현주는 가식적인 일상과 연극의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삶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진기행」과 「야행」에 나타난 전일체로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인 조화

1)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의 특성

심혼의 구체적 명칭인 아니마·아니무스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다음에 만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니마·아니무스 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의 성향에 관한 학설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의식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구분된다. 심리적으로도 서로 다른 관심의 특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융의 학설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지극히 자연스런 구별에서 출발한다. 남녀의 의식이 다른 만큼 무의식의 심혼의 성향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대조되는 성향의 내적 인격을 인식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내적 인격이 충분히

인식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녀의 타고난 장점을 살리면서도 의식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진기행」과 「야행」에 나타난 페르조나의 양상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인간의 전체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남성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 사회적 지위, 권위와 법, 명예를 존중하고 정치, 기업, 국가, 도는 학문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판단,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나 철학 같은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¹⁴⁸⁾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사회적 성공을 하기 위해 불붙을 가리지 않는 남성의 전형적인 페르조나를 지니고 있다. 시골 출신의 그가 서울의 제약 회사의 전무로 내정되기까지는 온갖 고초와 타협을 겪었을 것이다. 남성이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옴으로써 청소년기부터 특히 남성의 성취 동기는 주변의 상황에 의해 강화된다. ‘남자는 성공을 해야 좋은 여자를 만난다.’ 또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은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강한 사회적 페르조나를 갖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흥한다.’는 식의 그릇된 발상을 실은 어머니들에 의해 더욱 조장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남성들은 사회적 성공과 자기실현을 정비례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은 남성의 과도한 지위와 부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 것이다.

윤희중은 실연을 경험한 뒤,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현실적인 사랑을 택한다. 그 결과 무진에서 제일 출세한 인물로 그의 지위는 급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야행」의 현주는 희중과는 다른 페르조나를 드러낸다. 여성은 수용적이며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느낌으로써 세계를 받아들이는 경

148) 이부영, 『분석심리학-C.G. 융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1998. p.86.

향이 있다. 사회와 국가보다는 가정이, 추상적인 이념이나 학설,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다.¹⁴⁹⁾ 현주의 현실적 소망은 '생활이 주는 평범한 행복'이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좀더 저축이 불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버리고 싶지 않아서' 현주는 남편에게 '호소에 가까운 주장'을 해서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

현주의 페르조나도 윤희중의 페르조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것이지만 회중이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집단적 의미라면, 현주의 페르조나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인 것이다.

여성은 여성다운 특성에 일치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여성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화 받아 왔다. 그러나 성정형화된 여성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항상 성역할에 적합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조금 벗어나는 상황에도 적응하기 어려워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의 저하, 무기력,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로 자유로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¹⁵⁰⁾ 여성은 남성 우위의 관습이 고형화 되어 버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잉여적 존재로서 취급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관습은 마치 규범처럼 여성 스스로의 내면에서마저도 당연시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미시적인 경향이 많았던 것이다.

현주의 현실에 대한 저항이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 스스로의 수동적인 삶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149) 이부영, 앞의 책, p.87.

150) 김영희, 「여성 심리학의 현황과 연구」, 『동덕여성연구 1』,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6, p.95.

2)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조화

융의 학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는 지극히 자연스런 구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융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성차별주의에 의한 남녀의 역할의 구분과는 다르다. 그것은 남녀의 의식이 다른 만큼 무의식의 심혼의 성향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아니마·아니무스는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조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의 내적 인격이다.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가는 가운데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인격이,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인격이 내적 인격으로 자리잡게 된다. 심혼은 외적인 성격을 보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외적인 태도에서 남성이 논리와 객관성이 우세하거나 적어도 이상(理想)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여성에서는 감정이 우세하다. 그러나 심혼에서는 그와 반대인 것이다. 매우 남성적인 남성은 여성적 심혼을, 매우 여성적인 여성은 남성적 심혼을 가지게 된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사회적 성취 동기가 뚜렷한 지성적인 강한 남성이다. 그의 외적 태도가 그럴수록 그의 아니마는 약하고 감정적인 여인의 특성을 띠게 된다. 희중이 무진의 풍경을 읽어내는 방법은 논리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무진을 온통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희중이 하인숙과 쉽게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마의 투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내부의 여성은 희중으로 하여금 그의 페르조나와는 정반대로 감정적이며, 사물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남성으로서 희중에게 부족했던 개인적인 감정과 예감 능력을 획득하게 한다.

여성은 의식의 태도에 있어서 남성보다 개인적이다. 여성의 의식은 보통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지만 남성의 의식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확장

하는 성향을 띤다. 그러나 무의식에서는 그 반대이다. 남성의 무의식의 아니마상들은 뚜렷한 윤곽을 보이는데 반해서 여성의 무의식의 아니무스상은 불명확하고 다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희중의 아니마상들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친 여자, 술집 작부, 하인숙이 그들이다. 그러나 현주의 아니무스상은 '낮선 사내' 또는 '군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행」의 현주는 외적으로 여성다운 여성이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페르조나에 충실한 여성임은 앞서 말한 바가 있다. 여성에게 있어 느낌이나 기분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여성적인 본성에 포함된 여성 고유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여성의 내적 남성성의 발현인 '로고스로서의 의견'이다. 이러한 아니무스 의견은 흔히 확신과 같아서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

현주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아니무스 의견은 확고하다. 긍정적 아니무스 의견은 여성에게 부족한 로고스가 되어 여성의 의식에 성찰, 숙고와 인식을 마련한다. 따라서 현주의 야행은 여성의 유약한 감상이 아니며 현주의 내부의 강한 남성의 현신인 것이다.

현주가 그리워하는 낮선 사내는 외부의 남성이 아니라 현주 내부의 남성이다. 외부의 낮선 사내가 현주를 납치한 부정적 아니무스라면, 현주를 해방시켜 줄 현주 내부의 남성은 긍정적 아니무스이다.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니무스에 대항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아니무스는 위협을 멈추고 창조적 힘이 된다. 그것이 아무리 낮선 것이라 해도 오직 남성적 실체가 심혼의 통합된 부분이 되고 그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때라야만 여성은 진정으로 그녀 자신-개성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아니마·아니무스는 전체정신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중간 단계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자기와 동일시한다면 무의식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대조되는 성향의 내적 인격을 인식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Bem은 건강한 개인은 성유형화된 정체감을 획득하기보다는 성에 관계 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간의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¹⁵¹⁾

남성은 여성의 무의식에 잠자는 남성성을 일깨우고, 여성은 남성의 무의식에 남아있는 여성성을 의식화시켜 나가야 한다. 내적 인격이 충분히 인식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녀의 타고난 장점을 살리면서도 의식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변모할 수 있다.

151) 김영희, 앞의 책, p.98.

Ⅲ. 결 론

김승옥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참된 자기를 만들어서 외부 세계를 가치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했다. 특히 본 논문의 텍스트인 「무진기행」과 「야행」등 초기 소설은 개인의 존재 양상을 통해 무엇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자문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다.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의식이 강하고 끊임없는 심리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단히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에 관심을 쏟는 인물들이다. 김승옥의 문학이 6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의 소설이 특정한 누구이기보다는 바로 '자기'를 항상 구심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갈등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질문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전일체(全一體)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 면만을 내세우면, 언젠가는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삶의 일부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을 통한 전체성으로의 지향은 분열(分裂)을 지양(止揚)하려는 경향을 포함한다. 이것이 원형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전일체가 되고자하는 욕망이 원초적인 인간 본성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심리적 갈등 양상의 특성은 본연적인 것과 비본연적인 것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연적인 것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고자하는 내부 인격으로, 비본연적인 것은 물질주의나 실리주의 등에 집착해 자기의 본성을 도외시하는 외부 인격으로 나타난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제약회사의 전무로 내정된 사회적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 실상 현실의 어떤 기득권도 부정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회의도 함께 동반하는 정신의 분열상을 드러낸다.

무진에로의 여행은 회중이 경시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계기가 된다. 친구인 조와 박과의 대면은 자신의 그림자 보기이며, 현실 논리에 얽매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무진에서 만난 미친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둡던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되면서 묻혀진 내면의 갈등상을 직시하게 된다.

또한 그의 아니마상인 자살한 작부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현실과 존재 사이에서 방황한 그 여자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무진에서의 정체된 삶에 괴로워하는 음악 선생 하인숙은 그의 잠재된 내면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외부 인격인 페르조나와 내부인격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게 한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게 되지만 '부끄러움'은 성찰의 과정에서만 나타나고 고백으로서 그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선과 악'의 대극처럼 그가 자아의 '당당함'을 추구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반성할 줄 알며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인간이다. 무엇이 나의 길인가를 항상 마음 속에 물으나 그 해답이 분명하지 않음을 알며, 때때로 불투명한 혼돈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함을 안다. 그러므로 무진에로의 여행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내면의 성찰과정으로서 윤희중의 개성화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기실현은 반드시 완전해지는 것이기보다는 비교적 온전해지는 것¹⁵²⁾이기 때문이다.

「야행」의 여주인공 현주는 보편적 여성의 페르조나의 지향점으로 볼 수 있는 안락하고 부유한 가정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숨겨야만 하는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현주는 억압된 자신의 삶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며, 허위에 익숙해진 남편에 대한 증오를 자각하

152)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p.124.

면서 자신의 생활을 가치로운 삶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녀의 아니무스로 나타난 낯선 사내는 매몰되고 고질화된 삶의 울타리를 용기 있게 벗어나라고 암시한다. 현주는 윤리를 역행하는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감행한다. 공포와 혼란 없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자아를 경계하는 현주의 삶의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과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재 삶이 어대인가 좋다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고독과 탈출 심리는 무엇으로도 해명될 수 없을 것이다. 현주의 '야행'은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 찾기'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을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모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주의 야행은 외부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의 양상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희중의 페르조나가 사회적 위치의 획득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하여 현주의 페르조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우선하는데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페르조나와 자아와의 과도한 동일시로 인한 억압된 심혼상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성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전체 인격인 '자기'에 도달하는 길은 여성은 내부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남성은 내부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긍정적으로 체험하고 그네들이 보내는 무의식의 암시를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전일체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남성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를 살려서 분화하게 되면 남성에게 부족한 에로스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여성이 내적인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받아들일 때 여성에게 로고스가 되어 여성의 의식을 깊이 있게 성장시켜 준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에 고착되지 않고 이렇게 내부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살림으로써 전체 정신인 자기에 도달할 수 있

다.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개인의 심리적 갈등상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세계와 존재, 즉 자아와 페르조나와 대립되는 '자기 원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과 탈출을 모색하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의식 소설로서의 김승옥 문학은 진정한 '자기'를 찾고자하는 현대인에게 더욱 가치를 발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 전집 1-5』, 문학동네, 1995.

2. 논문 및 평론

공종구,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현대소설연구』, 이회문화사, 1998.

김병석, 「김승옥 소설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 논문, 1999.

김민수, 「1960년대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김병익, 「60년대식 풍속변화」, 『신한국문제작가선집1, 김승옥 선집』, 어문각, 1983.

김순희, 「김승옥 소설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김영희, 「여성심리학의 현황과 전망」, 『동덕여성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 여성연구소. 창간호('96.9) 1996.

김주연, 「개성화의추구」, 『한국현대문학전집』 제24권, 문학사상사, 1986.

김지원, 「김승옥 소설연구-작품속 화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김치수, 「질서에서의 해방」,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79.

김 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다산성 김승옥 대표 작품선』, 한겨레, 1987.

김학현, 「김승옥 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9.

나순일, 「김승옥 소설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

노현주, 「김승옥 소설연구-의미구조와 사회변동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배성희, 「김승옥 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
- 서은경, 「김승옥 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 송은영, 「김승옥 소설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오은희, 「김승옥 소설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 유정희, 「융학과에서 보는 여성심리」, 『신경정신의학 제 1호』, 1992.
- 유종호, 「슬픈 도회의 어법-다시 읽는 김승옥」, 『문학의 즐거움 -전집 5』, 민음사, 1995.
- _____,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유종호전집 1』, 민음사, 1965.
- 유홍주, 「김승옥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이광풍, 「현대소설의 제의구조연구」,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1983.
- 이동재, 「김승옥 소설의 시간의식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0.
- 이승준, 「김승옥론」,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이어령, 「죽은 욕망을 일으키는 逆유토피아」, 『多産性: 김승옥작품선』, 한겨레, 1987.
-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연구」,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 김승옥론」, 『부조리와 인간의식』, 문예출판사, 1981.
- 이호규, 「1960년대 주체 생산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 전혜자, 「내재적 장르로서의 <무진기행>」, 『어문논총 창간호』, 경원대학교, 1992.
- 조영주, 「서정주 시의 아니마 심상 연구-여인과 꽃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지선영, 「김승옥 소설론」,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6.
-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오늘의 작가총서-김승옥』, 민음사, 1980.
- 정숙란, 「김승옥 소설의 내면의식 연구」, 군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정학재, 「김승옥 소설연구 - 인물의 세계인식과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 정현기, 「1960년대적 삶」, 『다산성』, 한겨레, 1987.
- 차봉희, 「아도르노의 부정의 미학」, 『비판미학』, 문학과 지성사, 1990.

- 최상윤, 「한국의 자의식 소설 연구」, 세종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9.
-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난 귀향과 귀경의 구조」,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1.
- 한형구, 「김승옥론」,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 한경아, 「김승옥 소설의 인물의식 구조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 홍정선, 「작가와 언어의식」,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6.
- 황을숙, 「김승옥 소설의 일상성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3. 단행본

- 김승옥,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김승옥, 『1964년, 겨울』, 창우사, 1966.
- 김승옥,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양우당, 1988.
- 김주연, 『상황과 인간』, 박우사, 1969.
- 김화영, 『문학적 상상력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2.
- 권택영,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1998.
-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1999.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 이부영, 『분석심리학-C.G. 융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1998.
- 임 화, 『문학의 논리』, 학운사, 1936.
- 천이두, 『문학과 시대』, 문학과 지성사, 1982.
- 한동세, 『정신과학』, 일호각, 1969.

4. 번역서

- C.G. 융, C.S. 홀, J. 야코비 공저, 설영환 역, 『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6.
- C.G. 융, 설영환 역, 『융, 무의식 분석』, 선영사, 1986.
- C.G. 융,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2.
- C.G. 융, 이부영 外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 앤터니 스토, 이종인 역, 『융』, 시공사, 1999.
- 칼 야스퍼스, 정동호 역, 「죽음」, 『죽음의 철학』, 청람, 1986.
- O.F. 볼노브, 최동희 역,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84.
- C.S. 홀 外, 최현 역, 『융 심리학 입문』, 범우사, 1985.
- 오오무라 마사오, 박선무·고선윤 역, 『3일만에 읽는 심리학』, 서울문화사, 2002.
- 사카모토 미메이, 노지연 역, 『내 생애 처음 만나는 융』, 현실과 미래, 1999.
- 프로이트,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 켈빈 S.홀, 황문수 역, 『프로이트 입문』, 한림미디어, 1999.
- 리처드 윌하임, 이종인 역, 『프로이트』, 시공사, 1999.
-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실 세계의 일상성』, 일념, 1995.
-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9.

Abstract

A Study of Kim Seung Ok's Novels by Application of Analytical-Psychology. On "A Trip to Moojin" and "Night Traveling" -

Department Korean Language Jung Soon-Jung
Directed by Professor Nam Song-Woo

In this thesis I try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e pattern of characters' discords be the process of self-realization, i.e., of individualization, through psychological analyses upon the mentality of characters in Sung-Ok Kim's novels based on C.G. Jung's analytic psychology.

In "A Trip to Moojin" Huy-Joong Eyun reveals a schizophrenia as a result of over-identifying his social persona with his real self. He cannot deny his vested rights in realities as well as doubts about such a life.

The trip to Moojin becomes an opportunity for Huy-Joong to make unconsciousness which he has despised consciousness. The confrontation with friend Jo and junior Bark corresponds to the looking at a self-shadow, which functions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himself who is chained to the logic of bread and butter. A madwoman met in Moojin making him look back upon the dark time of his youth, he comes to look squarely at his hidden inner discords. He also comes to look at the corpse of a waitress, i.e., the image of his own anima. She suicided herself as a result of wandering between realities and being. Her death makes it possible for him to verify his own life. Also In-Sook Ha, a music teacher who has suffered from a stagnant life in Moojin, rouses up the dormant love for his inside as well as gives him this question, "How to harmonize the outer personality, viz., persona with the inner personality?" Although he returns to Seoul, the 'shame' that he feels, being a confession appearing only in the process of reflection, enables the prospect that he will pursue his self-esteem like the opposition

of 'good and evil'. Thus the trip to Moojin is to be interpreted as Huy-Joong's individualization process that is an inner reflection-process capable of seeing through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imultaneously.

Hyun-Joo, the heroine of "Night Traveling" pursues wealthy and comfortable home life that can be seen as a point of ordinary women' personae. Yet she cannot but live a false life concealing her marriage. In result, she suffers from mental discords due to the hatred for her own life. Hyun-Joo comes to look at her dirty shadow, to recognize abhorrence for her husband who is accustomed to the falsehood, and to realize her own life as opposite to valuable life. A strange man who came up as her animus suggests her that she should come out of the fence of a buried and confirmed life. She dare to confront realities by night traveling, a nonsocial method that goes against the ethics of realities. It is because without horror and disorder one cannot acquire self-identification. Hence, Hyun-Joo's 'night traveling' is to be interpreted as the process of 'self-identification', i.e., of individualization of the one who lost his or her self in absurd realities.

As a holistic entity, a human being needs the inner harmony of masculinity with femininity. The patterns of men's and women's personae show different features depending upon social conventions. While Huy-Joong Eyun' persona is centered on the acquisition of social status, Hyun-Joo's persona gives priority to the economic stability and material wealth of home life. While the over-identification of a man's persona with his own self results in the oppressed anima(i.e., men's inner femininity) in the man, that of a woman's persona with her own self results in the oppressed animus(i.e., women' inner masculinity) in the woman. The way to reach the 'self', the holistic personality, is possible only when Hyun-Joo and Huy-Joong experience animus and anima respectively and interpret the message that their unconsciousness give to each of them correctly.